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행사 결과보고서

뉴 노멀 시대 DPCW의 평화 의제 증진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행사 결과보고서

뉴 노멀 시대 DPCW의 평화 의제 증진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목차

4	행사 결과보고서 소개	75	부록1	인권세미나
6	숫자로 보는 2021 HWPL 평화 활동	83	부록2	종교평화캠프
		87	부록3	언론포럼
9	컨셉노트	93	부록4	온라인 평화교사 양성교육
11	축사	100	부록5	청년주권평화교실(YEPC)
13	경과보고	105	부록6	행사 홈페이지 및 콘텐츠
20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106	부록7	언론보도
	1) LP 프로젝트			
	2) 종교대통합			
	3) 평화시민			
40	제7주년 기념영상			
43	HWPL 이만희 대표 기념사			
48	IWPG 윤현숙 대표 기념사			
54	IPYG 기념사			
60	특별 퍼포먼스			
61	특별구성1 HWPL 대륙연합 종교연합사무실			
68	특별구성2 참석자 인터뷰			



행사 결과보고서 소개

본 자료는 2021년 9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행사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 노멀 시대 DPCW의 평화 의제 증진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157개국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HWPL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올해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평화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세계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변화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8주년 기념식에서 팬데믹 하에서 이뤄진 LP 활동의 새로운 사례들을 소개한 이후, 지구촌 공존과 화합을 위한 시민 주도의 평화 개발 구상 및 각 사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분야별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넘어온 소통과 교류는 오히려 긍정적 변화를 앞당겨 더욱 발전한 평화 사업의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DPCW 핸드북을 교재로 활용하여 진행된 그룹스터디,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된 인권 침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평화문화 교육과 종교평화캠프 등 평화의 가치 및 갈등 해결의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활동들도 조명하였습니다.

언론인들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뉴 노멀 시대 종사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언론포럼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또한 평화교육 프로세스 하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과 그 결과 실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가온 변화의 모습을 여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 교육의 결과가 반영된 실천으로서 필리핀 일로코스 노르테 바랑가이 포즈 지역에서 진행 중인 평화 정원 조성 소식도 담았습니다.

HWPL의 양 날개인 IWPG와 IPYG의 다양한 활동 현황은 경과보고 및 기념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행사에서 다뤄진 2021년 세미나, 포럼, 교육의 상세 내용 및 홍보 결과는 특별 구성 및 부록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는 세계 각국의 주요한 과제이자 평화 실현을 소망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1년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행동한 HWPL의 평화 사업의 결과들을 확인하시며, 다가올 2022년 더 다양한 분야의 평화 실현을 위한 시도와 희망적인 계획, 협력을 구상할 수 있는 자료로 이 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행사 준비 및 촬영 등 모든 과정에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숫자로 보는 2021 HWPL 평화 활동



7주년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20개 대학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
참여 및 수료 대학

Distribution of WARP Offices



Running 265 WARP Offices in 129 countries

HWPL is running 265 WARP Offices in 129 countries.

129개국
265개소

전 세계 종교연합사무실

340%

경서비교토론회
2021년 1~7월
3,089회 진행,
전년 대비 340% 증가



36개국 214개 교육기관

평화교육 MOU 및 M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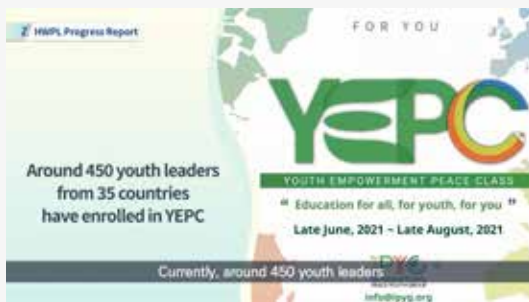


2,023명

평화 교사 양성 교육 참석자 수

111개국 851개

IPYG 교류 단체



35개국 450명

YEPC 수강 인원

50개

YEPW 참여 국가 수





75개국 2,300명

온라인 인권 세미나
참여 국가 및 참석자 수

36회 23개국 참여

온라인 종교평화캠프



2,279회

평화 활동 보도



64개국 2,000여명

여성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 뉴 노멀 시대 DPCW의 평화 의제 증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

1. 개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이 2021년 9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정치, 종교, 청년, 여성, 교육,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2014년 9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HWPL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HWPL은 매년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을 열고 지구촌 공동의 목표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 결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질병으로 촉발된 인류의 공존과 화합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뉴 노멀(New Normal)’로 상정하고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다룰 것이다.

본 행사에서는 질병, 전쟁, 재해 등 지구촌이 맞닥뜨린 새로운 현실과 극복을 위한 도전 속에서 2014년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과 세계인들이 선언한 평화의 약속과 같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concerted action)’이 발표될 예정이다. 즉 ‘평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평화의 사자들에게 의한 협력(collaborative efforts)’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사례들(illustrations)을 볼 수 있다. 본 행사는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최하고, HWPL과 함께 평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청년평화그룹(IPYG)과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 함께 한다.

2. 배경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인류에게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UN 창설 이후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은 크고 작은 갈등에 휘말렸다. 지구촌의 갈등은 그 원인과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빈도와 규모 또한 확대되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의 범위는 군사, 정치 등 안보적인 측면(aspects)에서 종교, 민족성(ethnicity), 문화, 환경 및 자원 등 비안보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갈등의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갈등의 범위와 주체는 역으로, 평화를 위한 범위와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은 세계 곳곳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쳤다. 질병의 확산은 과거의 발전 성과들(achievements)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미래의 진보(future progress)에 대한 방향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팬데믹은 경제적 타격, 정치적 분열, 거짓 정보

(misinformation) 및 가짜 정보(disinformation)에 의한 혼란, 소수 집단에 대한 오해와 차별,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 질병 외의(nondisease-related) 문제로 확산되어 인류의 생존 방식에 대한 근원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3. 행사소개

HWPL은 현시대 지구촌이 직면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의 원칙을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10조 38항으로 제시하였다. 선언문의 기본 정신은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 주체가 시민들이며, 폭력(violence), 강압(coercion), 주먹(fist) 등으로 표현되는 힘(power)의 통치가 아닌 공정한 통치(governance of fairness)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 차원의 법적 기반(legal foundations)을 통한 평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1조부터 7조는 국가들이 수호해야 할 평화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UN과 국제기구에서 논의 및 확립해 오고 있다. 8조 ‘종교의 자유’,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10조 ‘평화 문화의 전파’는 현대에 새롭게 부상한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다뤄져야 할 원칙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 조항은 평화를 이루는 주체로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와 시민 모두를 설정함으로써, 평화의 노력이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에게서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HWPL은 전 세계 193개국과 여러 지역에서 ‘레지슬레이트 피스’(Legislate Peace, 이하 LP)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사회 지도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평화 운동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평화사업들의 면모를 소개할 것이다. 놀랍게도, 일부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발전한 평화사업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DPCW의 각 조항은 법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재가 되었다. 온라인으로 전환한 경서비교토론은 세계 종교지도자들과 함께하며 종교의 본질과 종교 속에 담긴 평화의 의미 발견을 위한 논의를 더욱 촉발시켰으며, 종교평화캠프는 분쟁 지역의 사람들이 상호 간 물이해에서 오는 적대감을 유지하기보다 이해와 공존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터는 평화공원과 비석의 건립을 통해 평화를 기념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이 이끄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도회는 종교를 초월해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안녕(well-being)과 건강을 축복하는 화합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펜보다 총이 먼저 쥐어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먼저 배우며, 비행, 폭력, 약물 중독으로 점철되어 희망을 잃은 곳에서 진행 중인 평화교육은 평화의 정신을 전파할 청년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언론인들은 팬데믹 하에서 가짜뉴스 생산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에 동참하며, 정보를 분별하는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 각계각층의 협력은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팬데믹의 뉴 노멀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동력으로서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축사

축사 1



로살리아 아르테아가 세라노 에콰도르 전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로살리아 아르테아가입니다. 저는 에콰도르 전 대통령이자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저는 항상 교육이 모든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HWPL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 또한 만국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소통하고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고 평화를 원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모두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과 청년들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언어적 폭력을 멈추고 부당함과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HWPL을 비롯하여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평화로 가는) 이 길에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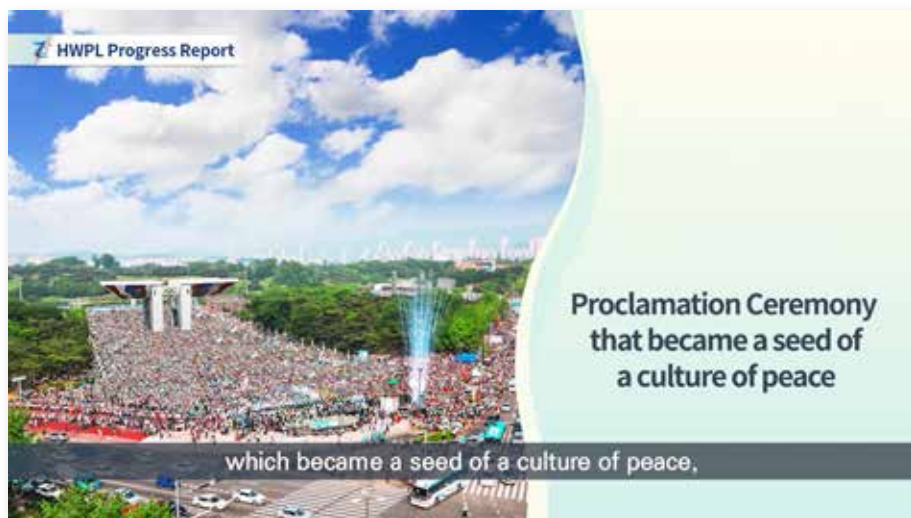
루시오 에드윈 구티에레스 보르부아 에콰도르 제 43대 대통령

친애하는 평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정중한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에콰도르 전 대통령 루시오 구티에레스입니다.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뜨거운 축하 인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비록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도전이지만 여러분은 이루어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는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지구촌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이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총무 강태호입니다.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오직 우리의 후대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전하고자 걸어온 HWPL의 평화 활동, 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HWPL은 2013년 5월 25일 창립되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공보국(DGC)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입니다. HWPL은 국제청년평화그룹(IPYG)과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을 양 날개 삼아, 국제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 및 지구촌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HWPL의 창립일인 2013년 5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평화의 문 앞에서 이만희 HWPL 대표님은 세계평화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본 선언문을 선포함과 동시에 세계평화광복이 시작되었다.’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 그대로, 당시 평화의 문 앞에 함께했던 130개국 3만여

명의 청년들은 선언문 선포 후 자국으로 돌아가 평화 걷기를 시작으로 각국 시민들과 다양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는 평화문화의 씨앗이 되어 다음과 같은 평화의 결실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정치 및 종교 갈등으로 40년간 약 12만 명이 희생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이만희 HWPL 대표님은 현지 정치, 종교지도자들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양측이 갈등을 종식하고, 종교 본래의 가르침과 뜻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날, 수천의 민다나오 청년들은 평화 걷기대회를 통해 거리에서 평화를 외쳤으며 이후 분쟁지역이었던 민다나오에서는 ‘민다나오 평화협정기념비’가 건립되어 평화를 위한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협정이 체결된 1월 24일은 HWPL Day로 지정되었으며 이날 민다나오의 시민과 지도자들은 평화의 약속을 기억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평화협정은 지구촌 전쟁종식과 지속 가능한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HWPL의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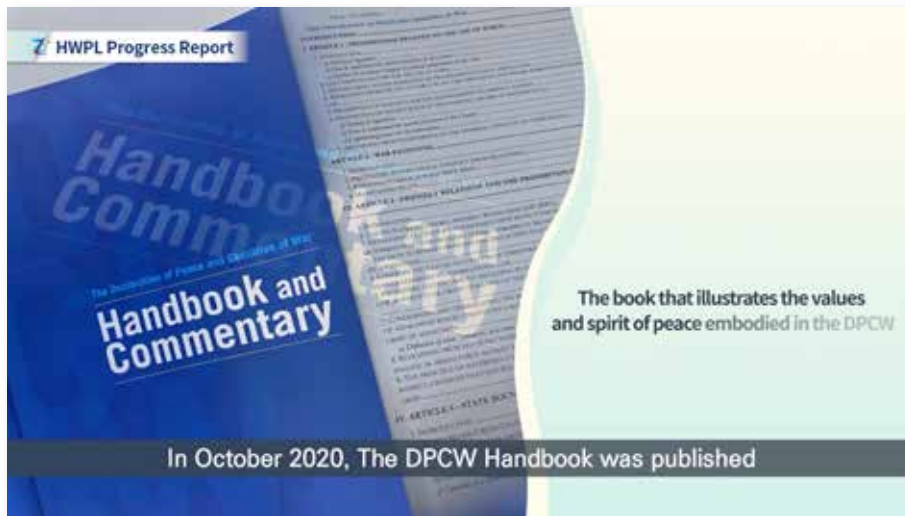
2014년 9월 18일, HWPL은 대한민국 서울에 170개국 4,000여 명의 각계각층 지도자와 20여만 명의 시민을 초청하여 민간단체로서는 최대 규모인 ‘HWPL 9·18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본 회의에서는 인류의 상생과 공존 전쟁 종식과 평화실현을 위해 두 가지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직 국가원수 등 정상급 지도자들이 서명한 ‘전쟁 종식 국제법 발의안 지지’ 협약과 각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한 ‘종교대통합’ 협약이며 각 단체장은 이를 이루기 위해 촉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올해로 9·18 평화 만국회의는 제7주년을 맞이했으며 HWPL은 전 세계 시민 앞에서 서약한 이 협약을 반드시 실현하여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 없이 뛰고 있습니다.



2015년 평화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에선 HWPL은 세계적인 국제법 권위자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ILPC를 발족하였습니다. ILPC는 이 대표님과 함께 지구촌 모든 계층이 실천 가능한 평화 발전 방안을 담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DPCW)’ 10조 38항을 작성하여 2016년 3월 14일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후 DPCW

는 현재까지 지구촌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HWPL은 평화 국제법의 제정을 위해 DPCW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DPCW의 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DPCW 해설서 ‘DPCW 핸드북’이 ILPC 위원들에 의해 편찬되었고 현재까지 인도, 방글라데시, 튀니지의 20개 대학에서 법대 교수와 학생 및 시민들이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습니다.



HWPL 이 대표님과 평화의 사자들은 범지구적 규모의 세계 평화 연대를 구축하고자 총 31차례에 걸쳐 전 세계를 방문해 왔습니다. 수많은 평화의 만남을 통해 평화연대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평화자문위원 200명과 평화홍보대사 610명을 위촉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총 265개의 단체와 평화 MOA,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HWPL은 동유럽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된 ‘발트흑해이사회’와 아프리카 55개국 연합 AU 소속 입법기구인 범아프리카의회 PAP와 평화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님은 145개국의 유엔 대표부에 DPCW 10조 38항과 평화실현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기립박수를 받는 등 세계평화순방을 통해 국제 규모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DPCW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HWPL은 평화 국제법의 제정을 위해 지구촌 규모의 평화 프로젝트 ‘레지슬레이트 피스 (L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전쟁종식과 평화를 외치며 3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평화 걷기에 참여했고 DPCW 지지 서명은 176개국에서 73만 건이 모였습니다.



2014년 평화 만국회의에서 체결된 종교대통합 협약의 실현을 위해 HWPL은 전쟁의 주된 원인인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종교연합사무실을 129개국 26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인류의 평화실현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져 2021년에는 1월 이후 7개월 동안 3,000회 이상의 경서 비교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3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구촌 시민들과 후대에 평화 가치관을 전하기 위해 HWPL은 전 세계 214개 교육기관과 평화교육 MOU 및 MOA를 체결하고 평화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를 개발하며 평화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평화교육은 517회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 평화교사 양성교육엔 총 2,0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HWPL과 함께하는 전 세계 언론은 팬데믹 시대에도 인권 증진, 구호, 인도주의적 지원, 봉사, 교육 등 지구촌 곳곳에서 지속된 평화 활동을 앞장서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화 언론 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162개국 1,900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총 5,400여 건의 HWPL 평화활동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HWPL은 평화 언론 포럼을 개최하며 평화 증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111개국 851개 단체와 연합한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 IPYG는 국제 규모의 청년 토의플랫폼인 청년주권평화워크숍 YEP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한 청년들의 능동적 역할을 모색하는 본 워크숍에는 50개국 이상의 청년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직면한 교육의 중단과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및 폭력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청년을 위한 교육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청년주권평화교실 YEPW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35개국 450여 명의 청년 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청년 평화의 사자로 성장해가고 있

습니다.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실현을 위해 중단 없이 이어온 HWPL의 평화행보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노력하는 여러분 바로 평화의 가족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며 전파된 평화문화는 우리를 하나로 이어 결국 지구촌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영원히 빛날 평화를 후대에 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평화의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1) LP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HWPL의 평화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A. 레지슬레이트 피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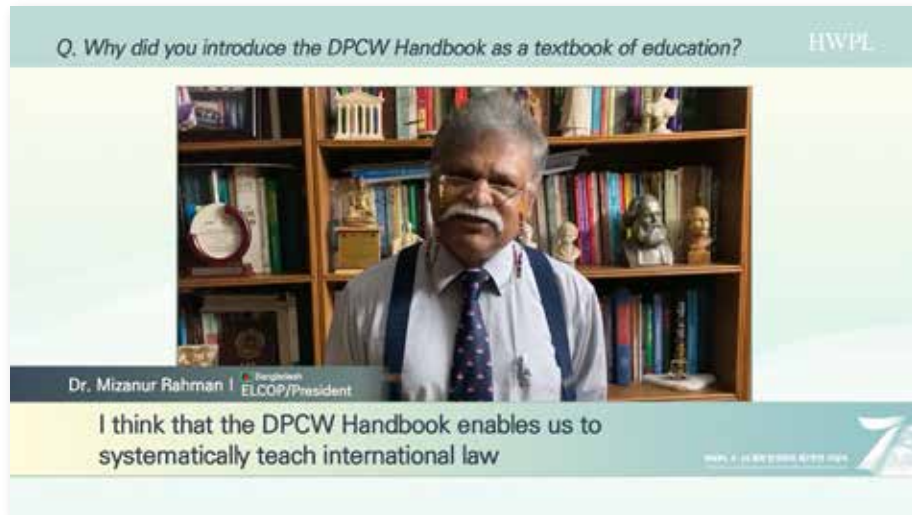
HWPL은 DPCW가 국제적 지지를 얻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구속력을 가진 법이 되도록 레지슬레이트 피스 프로젝트를 전개 중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새로운 캠페인들을 진행했습니다.

B. DPCW 핸드북 온라인 그룹 스터디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활동은 바로 DPCW 핸드북 온라인 그룹 스터디입니다. 이 핸드북은 DPCW 10조 38항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해설집의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각 조항에 담긴 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알려 능동적으로 DPCW 지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핸드북에 대한 논의는 2019년 제7차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회의에서 시작됐고 팬데믹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끝에 2020년 10월, 핸드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북에는 DPCW 각 조항과 관련된 국제 이슈들이 함께 담겨있어 평화의 가치와 필요성, 실현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카대학교 전 학장이자 법학 교수인 미자눌 라흐만 교수님. 교수님은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14개 대학 법대생들을 모집해 DPCW 핸드북을 교재로 활용한 온라인 그룹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1



미자눌 라흐만 방글라데시 | ELCOP 대표

질문1 DPCW 핸드북을 교육 교재로 도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DPCW 핸드북을 활용하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국제법과 평화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현재 수강 중인 학생들이 이후 진행되는 수업의 강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DPCW 핸드북 온라인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DPCW 핸드북에 관해 토의하며 국제법 강의자가 되고 지구촌 평화의 대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질문3 DPCW 핸드북 온라인 그룹 스터디 이후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DPCW 핸드북에 담긴 가르침을 본 저는 DPCW 핸드북 강의자가 되어 학생들을 통해 DPCW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나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이 교육을 전해주는 강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DPCW 핸드북 온라인 그룹 스터디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방글라데시, 인도, 튀니지 3개국의 20개 법학 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발표와 토의를 통해 DPCW를 분석하고 탐구했으며 법 전문가와 교수님들이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인터뷰 2



아리풀 라흐만 방글라데시 | 다카대학교 법학부 학생

질문1 DPCW 핸드북 온라인 그룹 스터디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6개월간 참여한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는 제게 있어 놀라운 평화교육의 경험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전체가 매우 특별했지만, 그 중에서도 전 과정이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DPCW를 통해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외의 뛰어난 멘토와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 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인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화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이 사회에 큰 공헌이 될 거라 믿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질문2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 과정을 졸업하여 일반인들에게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DPCW 시민 평화 문화 교육’의 강사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PCW가 방글라데시에서 진행 중인 로힝야 사태나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권 위기 같은 난국을 끝낼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 특히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과 이와 비슷한 여러 나라의 시민들에게 평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PCW 시민 평화 문화 교육



아리플 라흐만 학생의 말처럼 HWPL에서는 핸드북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8월, 다카대학교 평화 분쟁 학부생을 대상으로 DPCW 시민 평화 문화 교육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온라인 세션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월 세션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직접 준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시민 평화 문화 교육은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걸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C. 온라인 인권 세미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온라인 인권 세미나입니다. 작년 9월부터 HWPL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된 인권 침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정 폭력, 여성 인권, 소수 종교 등을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75개국, 2,30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HWPL은 온라인 인권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지역단체, 시민이 교류하며 일상 속 평화 이슈를 해결하는 평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국의 다양한 계층과 단체를 연결하여 평화의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평화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D. 시민 평화정책 제안 활동

더불어 HWPL은 각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시민 평화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UN의 지속 가능개발 목표 16번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와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을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행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정부 인사 및 시민단체와 논의를 해왔으며 올해 9월에 평화 정책안을 말리 정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HWPL은 DPCW가 평화 국제법으로 상정되는 그날까지 각국 지도자의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평화의 법 아래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 그리고 뉴 노멀의 시대에도 HWPL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연결될 것이며 더욱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활동들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2) 종교대통합



안녕하십니까? 저는 HWPL 종교연합사무실에서 활동한 평화 활동을 발표할 박수정입니다.

A. 종교대통합 실현을 위한 종교연합사무실

HWPL은 2014년 평화 만국회의에서 맺은 ‘종교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종교연합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129개국 265개소에서 운영되는 종교연합사무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활동이 증가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3,089회의 경서 비교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HWPL 종교연합사무실의 핵심 사업인 ‘경서 비교 토론회’를 통해 종교의 본질인 ‘평화’로 마음을 모았고 서로의 경서를 비교하고 토론하여 ‘종교 화합’에 힘썼습니다. 전 세계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각국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지구촌 시민사회를 일깨우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평화를 위해 힘써주신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1



사딧 쿠마르 태국 | 라마크리쉬나 베단타연합 대표

여러 경서에 따르면 종교는 하나이고 신도 한 분이지만 그 길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각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들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인터뷰 2



베린다 웨스트코트 남아프리카공화국 |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 영성 대학교 코디네이터
분명 종교 간 이해와 화합은 세상의 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에 세

상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이로 인해 무고한 가족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서 비교 토론회는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서 비교 토론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빛의 네트워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구촌이 이 빛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지구상에는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정서를 공유하며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첫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빛의 네트워크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의 노력은 경서 비교 지식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이는 마침내 가장 믿을만한 경서를 찾아 종교 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통합, 그것은 인류에게 평화와 화합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은 경서 비교 토론회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종교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에 필요한 평화 문화를 전파하는 활동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사원 안에 종교 연합사무실을 만드는 노력도 있었는데요. 그 예로 대한민국의 한 불교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B. 종교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은곡선원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은곡선원 은곡 대종사님은 이만희 HWPL 대표님께서 8.15 광복 65주년을 기해 공표한 ‘조국통일선언문’에 깊이 감동하여 기꺼이 선원내 HWPL 종교연합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이 선원을 평화 문화 전파

의 현장인 ‘종교연합사무실’로 공표하는 현판식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종교문화 전시와 이 어져 선원 내 평화를 꽃피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은곡 대한민국 |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은곡선원 대종사

조국통일선언문은 한 사람이 듣고 즐길 게 아니요 남북한에 살고있는 조국의 국민들이 조국이 통일되고 세계가 평화 되도록 주먹을 쥐고 땅을 치며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죽는 날까지 조국통일선언문의 내력을 지지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집회장에 가서 보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노장의 대표님께서 앞장서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시는 데 감탄을 느꼈으며 나도 저곳에 사막의 모래알 하나만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동참하였습니다. 저도 인간이 다하도록, 맥이 다하도록 조국 통일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 종교평화캠프



이처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HWPL과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 되어 일한다면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간의 평화는 종교 지도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반대함과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핵심 계층인 시민 사회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종교연합사무실은 세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른 종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HWPL 종교평화캠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7월) 핀란드

와 인도 등 23개국에서 36번의 온라인 종교평화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시민들은 다른 종교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과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접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유럽 3개국이 참여한 종교평화캠프가 열렸는데요. 지구촌 평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부터 기도회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1



바라트 샨마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힌두 마하 사바 청년 회원

가장 인상 깊었던 순서는 토론 후 전체가 각 소그룹 대표와 다시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 대표들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접하는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입장을 들으며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시민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시각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HWPL과 같은 단체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코 게르버 남아프리카공화국 | 웰게모드 엔지 교회 성도

마지막에 상영했던 필리핀의 섬 민다나오에 대한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화 운동가 이만희 HWPL 대표님께서서는 두 종파가 모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셨습니다. 짧게 시청하였으나 그 부분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 기념비 제막식 장면이 상영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평화를 상징하기에 매우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상징과 연관되어 있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면 좋겠고 대중들에게도 더 널리 알려져 ‘종교는 전쟁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보드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한다면 사람들은 이 행사를 달력에 기록하고 “맞다! 이번 달 행사에 가야겠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지구촌 곳곳에 차별과 분리가 아닌 평화와 화합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종교의 평화란 무엇인지 종교 간에 분쟁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종교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사회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평화는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 문화의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종교에 평화 문화가 더해질 때 평화는 비로소 영원한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평화와 소통의 장을 연 한 명의 시민, 이만희 HWPL 대표님처럼 지구촌의 많은 시민이 평화의 정신으로 동참한다면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D. HWPL 종교연합사무실과 하나 된 'HWPL 지구촌 종교인 온라인 기도회'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절망을 겪어야 했던 지난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HWPL 종교연합사무실에 모였고 '지구촌 종교인 온라인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분쟁과 고통, 병마와 갈등으로 얼룩진 지구촌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통일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고 이 기도회는 시민사회에까지 확대되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WPL 종교연합사무실은 '지속 가능한 평화 문화의 전파'를 위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자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운동의 범위를 넓혀 갈 것입니다.

종교 간 대립을 대화로 변화시키고 종교와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지구촌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합! HWPL 종교연합사무실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평화운동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We are one!" 평화의 완성을 함께 이루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3) 평화시민



기념식에 함께해 주시는 지구촌 평화 가족들의 열정이 정말 뜨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지은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한 가정에만 맡겨진 책임이 아니라 부모, 학교,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도 온 지구촌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 확인하셨듯 HWPL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HWPL과 함께 전 세계 교육계 및 언론계 인사들은 평화 정신을 가르치고 시민들에게 평화의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A. 세계평화언론연합

이처럼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서 사람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넘어 재난 극복의 해결 주체로서 행동하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부각되었고 HWPL 평화 활동에 관한 언론 보도가 활발하게 증가했습니다. 영상, 음성, 인터넷, 지면, SNS 보도 형태를 총합해 2021년에는 평화 활동 보도 건수가 예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2021년 2월에는 ‘평화의 목소리, 미디어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 언론인들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 동향과 미래 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이 포럼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뉴노멀 시대 미디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열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포럼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은 자발적으로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입을 모았는데요. 열 가지 원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던 태국 더 네이션 뉴스페이퍼의 수팔락 간자나쿤디 전 편집장입니다.

인터뷰



수팔락 간자나쿤디 태국 | 더 네이션 뉴스페이퍼 전 편집장

우선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2월 언론 포럼의 결과로 도출된 10가지 권고 사항에 동의함

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힘들어졌기에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각국의 언론은 홀로 일해서 정보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HWPL 평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은 모든 분야의 해결책이자 근본적인 답이 되는데요. 미래의 평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HWPL에서 정립한 평화교육 프로세스는 평화 교재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활동, 발표,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의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더불어 평화 교사 양성 교육과 그 지침을 학교와 교육 기관에 제공해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직접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HWPL 평화교육은 이렇게 ‘학생 지도’와 ‘교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214개 교육기관과 평화교육 MOU, MOA를 체결하고 53개국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전 세계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특히 필리핀과 인도, 루마니아에서는 평화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평화 공원을 꾸미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장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 JNMS 미디엄 스쿨에서 학생들이 ‘코로나를 이겨 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평화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유럽 루마니아 학생들은 평화교육 12과를 모두 이수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말리 타이케냐 학교와 체코 제브라크 초등학교 평화 캠프에서 학생들이 감사 나무를 그리고 있는데요. 앞사귀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적어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HWPL 평화 교재는 총 2가지 파트 12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근본적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회복의 답을 찾으며 감사와 배려, 희생, 이해와 용서 등 평화 시민에

게 필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평화교육을 받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1



가우리 카메르카 인도 | 재갯구루 나렌드라차르야지 마허라즈 교육기관 학생
평화교육을 배우고 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변화는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2



존 베네딕 보니파시오 필리핀 | 딩라스 국립 고등학교, 포블라시온 캠퍼스 학생

저는 우리 모두가 호전적인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함께 사랑과 평화의 교육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가까운 미래에 평화 주역이 될 학생들이었습니다. HWPL 평화교육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온라인 평화 교사 양성 교육을 수료한 프랑스의 플로렝 파스키에 소르본 대학교의 교수는 평화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연방 교육부 옥타비아 알프레드 장관은 HWPL의 평화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3



플로렝 파스키에 | 프랑스 | 소르본 대학교 교수

저는 청년들과 1, 2년 차 석사 과정생들을 교육하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HWPL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식은 오랜 성찰의 결과임이 분명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화교육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교육의 존재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평화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타비아 알프레드 도미니카 연방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오늘은 HWPL의 평화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WPL 평화교육은 도미니카 내 학교 교육과정 중 보건 및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HWPL의 평화교육은 훌륭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미니카에 잘 정착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화교육 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맺혀질 결실이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도미니카는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HWPL의 결실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미니카 연방이 평화교육 실행 국가로 선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미니카에서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한 평화의 바람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C. 평화 교육 그리고 평화 기념비

2014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 후 HWPL은 민다나오와 필리핀 전역에 평화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민다나오 코타바토시는 지난 7월 19일 HWPL 평화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의 세 번째 평화 기념비입니다. 시민들이 평화를 생각하며 민다나오 전역에서 돌을 모아 와 하나씩 쌓아 올려 완성한 이 기념비는 구분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화를 위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문화는 필리핀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최북부 지역인 일로코스 노르테 바랑가이 포즈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평화의 기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학생들이 HWPL 평화교육을 받았고 다툼과 갈등이 잦았던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로코스 노르테 바랑가이 포즈 지역은 평화의 마을이 되었고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용돈과 후원금을 모아 평화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이본 카밀 라네스 | 필리핀 | HWPL 평화 교사

평화교육을 시작으로 저희는 평화 활동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활동 중 ‘평화의 나무 심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 캠페인을 할 때 나중에 평화 기념비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

다. 그 후 한 달 만에 바랑가이 포즈 지역 주민들은 평화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현실로 실현하였으며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 부지는 자녀들을 HWPL 평화교육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평화 기념비가 두 가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문은 이 땅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오다가 갈등을 매듭짓고자 기부하였습니다.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비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써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변화의 혁신을 가능케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단, 민다나오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필리핀 전역에 펼쳐져, 북단 일로코스 지역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HWPL 평화교육이 전 세계에 보편화된다면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가 당연한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HWPL은 앞으로도 국가 교육 기관과의 MOU, MOA를 확대하고 평화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은 물론 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평화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오늘날 뉴노멀 시대에 꼭 필요한 평화 인재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7주년 기념영상



지인들과의 약속이 취소됐다.

하지만 가족과 더 많은 약속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많은 여행이 취소됐지만 우리는 더 자주 여행을 떠나게 됐다. 체육관이 문을 닫는 동안에도 339명의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학교의 수업 시간이 짧아졌지만 온라인 수업은 더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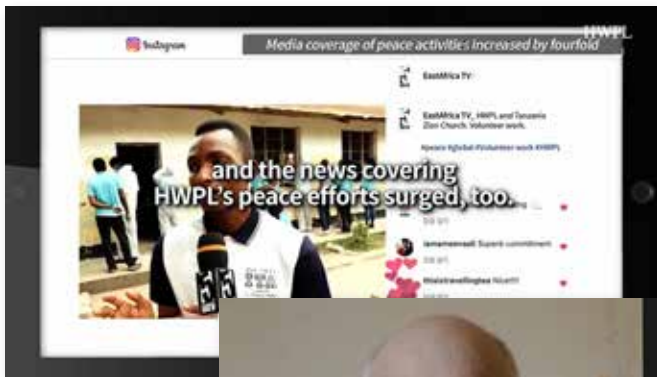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HWPL의 평화교육도 활기를 띠었고

IPYG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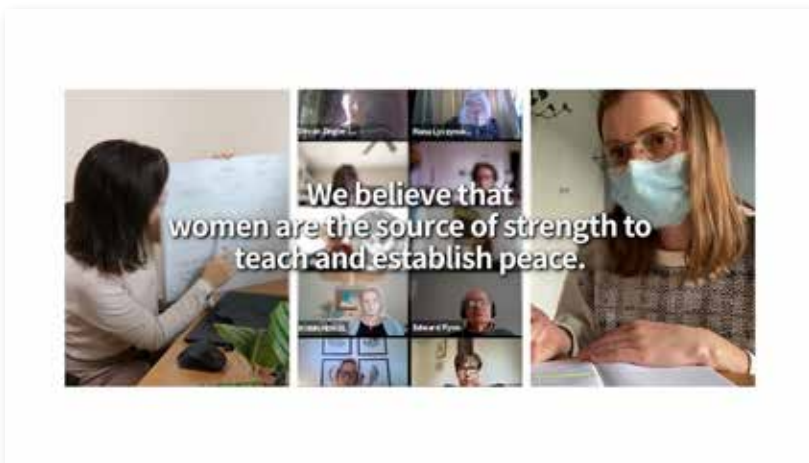


세상이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종교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고 그들은 평화를 위해 열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재난의 소식이 많을수록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소망은 커졌고
 HWPL과 함께한 **평화의 소식**도 크게 늘었다.

외롭고 힘든 이웃이 많아질 때 HWPL은
 어떻게 하면 소중한 이웃들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우리는 **여성**들이
 평화를 가르치고 이뤄나갈 힘
 이라는 것을 믿는다.

놀랍게도

팬데믹 가운데 더 많이
팬데믹 가운데 더 넓게
팬데믹 가운데 더 똑똑하게
팬데믹 가운데 더 뜨겁게

평화를 위해 함께한 노력은 반드시 평화를 이룹니다.

평화로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 HWPL.



HWPL 이만희 대표 기념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하늘문화세계평화 HWPL 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우리 다 바라고 원했던 목적지에 함께 이르도록 노력합시다. 저 하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9·18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참으로 우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7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 짓고, 평화를 이루어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지구촌을 31바퀴 나 돌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찾아간 지구촌 각국 전·현직 대통령 여러분들, 대법원장 여러분들, 국회 위원장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 여러분들, 각국 단체장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보도진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철없는 아이 같은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에 방문하였고 여러분들이 반가이 맞아주었으며, 또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의 소망을 바라고 함께 똬 그날들이 생각납니다. 7주년을 맞이한 우리 HWPL 가족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목적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천지 만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고등동물 사람인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 옛날 지구촌을 돌면서 여러분들을 이 작은 눈 속에 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탁의 말 이 작은 귓속

에 담았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그 말 찡찡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의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변치 맙시다.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We are one’ 이라 했습니다. ‘We are one.’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소망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시골 그 조그마한 곳에서 살아오다가 농사짓고 살았죠. 그러나 어릴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매일 할아버지는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사람은 군에서 제대한 이후 농막 뒤 별판에서 아침저녁 기도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항상 기도했죠.

그런데 거짓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 크고 밝은 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상 한 7미터 될까요? 저 앞에서 저보다 더 큰 별이 너무나 밝은 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데 가서 깨웠습니다. ‘별이 왔습니다. 별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깨웠죠. 그래서 아버지도 밖에 나와 보시고 놀라시며 ‘아, 그 별 크다. 밝다!’ 그러시면서 ‘옛날에도 인재가 나타나면 별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인재가 나타나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별은 삼 일간 저에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그 별로 인해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득한 옛날이죠.

그래서 출발한 것이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역사를 해왔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지만 이 지구촌을 그렇게 31바퀴나 돌았지만 제가 종교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일말(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에 전쟁 종식 평화를 위해서 국경, 인종, 종교 다 초월하고 이 사람은 각국을 찾았던 것이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못난 사람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다? ‘We are one’이었습니다. ‘We are one’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We are one’은 어떤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이 지구촌의 전쟁 종식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어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각오와 목적으로 우리는 만남이 있었죠? 그렇게 온 세계를 돌고 돌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도 오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그 목적 변치 않는다면 결코 이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또 평화라는 두 글자 안에서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 사람 각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We are one’이었죠. ‘We are one.’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모두 만났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국회의를 열 것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국회의 때에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정치인들은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또 평화 세계를 위해서 국제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세상 단체장들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이 단체장들은 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이를 것을 약속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국회의 때,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를 이루겠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세계 만민 앞에 약속한 그것을 모든 단체장들은 촉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서명 날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세계 만민 앞에 약속한 그 약속 이뤄야 하겠죠?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이를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물러가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인 것을 결코 이뤄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이뤄야 하겠죠? 그래야 합니다. 이 일은 누가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말을 입으로 내뱉기에 또 약속하였기에 우리 때에 다 이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 이 사람은 각국에서 전·현직 대통령, 대법원장들, 국회 의장들이 사인해 준 그 노트가 아직까지 서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그 시에 사인한 그것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지구촌을 보고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적인 것을 이뤄야

하겠죠? 이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 이걸 누가 일하겠는가? 우리 HWPL 가족 여러분들이 해야 하겠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이 지구촌 하나 놔놓고 조상님이 물려주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물려준 이 지구촌 전쟁으로 파괴돼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이 물려준 이 지구촌 우리는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입니다. 낙원의 세계를 가꿔서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We are one'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목적을 결코 이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갔을 때 55개 나라 국회 의장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다 HWPL과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 이 지구촌을 함께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남아공에서 말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로 갔을 때 우리 지구촌 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죠. 그때도 약속은 무슨 약속을 했겠습니까? 지구촌에 전쟁 종식 평화를 이룬다는 그 약속, 다 사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돈도 좋고 권세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무엇을 우리가 세워놨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

령기에 이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18 그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7주년이죠? 이 9·18 이날에 맹세한 그 모든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하늘도 들었고 보았으며, 땅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로 땅으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뤄야 하는 줄 압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더 옳은 게 있고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지구촌에는 최고의 과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이었습니다. 핵, 핵은 이 지구촌을 하루아침에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종식 짓고 이제는 영원한 삶의 낙원의 세계를 이루어 영원한 유산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HWPL의 가족들에 대해서 일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의 가족들은 모두 다 HWPL의 가족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루마니아에 갔을 때마다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 대법원에 거기에서, 대법원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 갈 때마다 꼭 자기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또 우리에게 식사도 대접해주었습니다. 갈 때마다 말입니다. 그 은혜 그 모습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주고 동의해주고 협조해주신 은혜 또 어찌 잊어지겠습니까? 너무나 고마웠지요.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코로나가 잠을 자면, 우리는 또 우리 목적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

리는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두 사람도 다 같은 마음으로 평화라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적인 전쟁 종식 평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살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과거에 에덴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구촌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싶습니다. 누구와? HWPL 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멋진 우리 지구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치 맙시다! 하나님과 하나 된 오늘날 우리,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모두가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일해야 하겠지요? 그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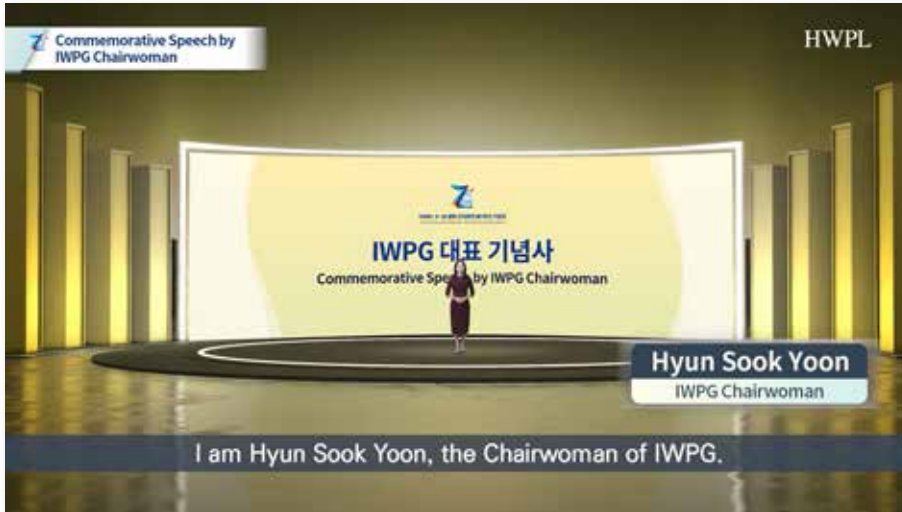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이 제일 좋겠습니까,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게끔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서 함께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이뤄가도록 합시다! 절대 변하지 맙시다. HWPL이 바라는 것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아닙니까? 이 평화를 꼭 이뤄야 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이제 법도 없

어져야 하고 죄도 없어야 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최고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와 사랑이 깃들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저 하나님도 그런 세계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그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없는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자유의 세계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HWPL 가족이 앞장서서 우리 지구촌을 새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노력하고 함께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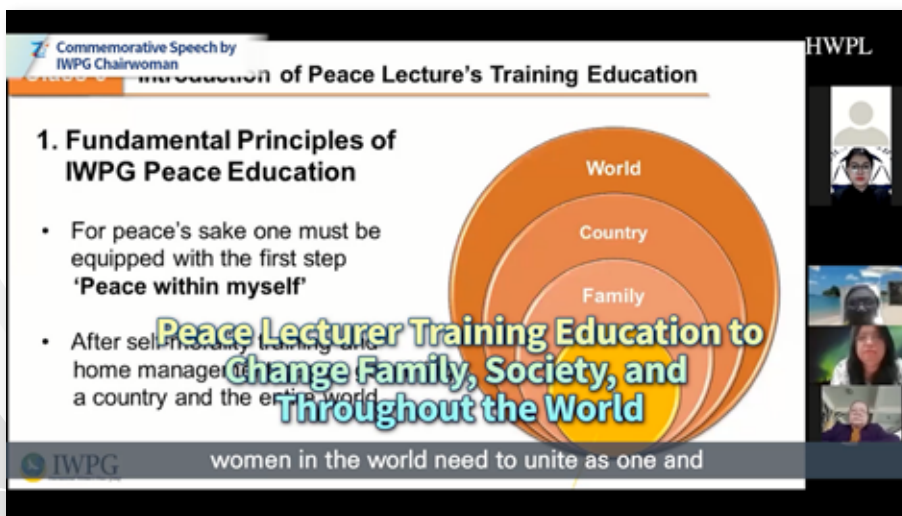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저 양쪽의 준 선물이나 여러분들과 찍은 사진을 본다면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난다면 왕래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완성의 그 날까지 변치 맙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또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한 그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함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IWPG 윤현숙 대표 기념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IWPG 대표 윤현숙입니다. HWPL과 함께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벌써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만희 HWPL 대표님과 평화의 사자들이 방문해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던 곳에 화합과 평화가 선포되기도 했고 전쟁을 기념하던 곳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평화를 기념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IWPG는 HWPL과 함께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여성 평화를 잇다, 공존·회복·소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 여성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



IWPG의 설립 목적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여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IWPG 전 세계 회원들은 세계평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오늘 소개해드리려는데요. 바로 ‘여성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입니다. 지구촌 39억의 여성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평화가 가정, 사회로 나아가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교육입니다. DPCW 10조를 근간으로 한 이 교육은 지금까지 59개국에서 1,000여 명의 강의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인터뷰 1



랄지 발그히스 인도 | 세인트 매튜 고등학교 및 전문 대학 교장

저는 랄지 발그히스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자이자 사회 운동가이며 세인트 매튜 고등학교 및 전문 대학 교장입니다. 교육은 제 직업이자 열정입니다. 저는 2,0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홍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평화교육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교육하기 시작했을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평화는 학교에서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평화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퍼지고 그리고 그 평화는 많은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환경마저 평화롭게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화교육에서 찾은 것입니다. 평화교육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성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친 수료자들은 현재 평화 강의자로서 각국에서 평화의 가치와 중대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킨 무무 한 미얀마 | 기독교 여청년 협회 사무총장

2020년에는 만달레이 평화위원회 위원들과 오프라인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을 공동 기획했습니다.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을 6회까지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교육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코로나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두 명의 평화 강의자와 함께 온라인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가장 인상 깊고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약 60명이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에 신청했고 강의 때마다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며 모두가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화교육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평화 인식이 부족한 미얀마에 필요한 교육이기에 참가자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온라인 평화 강의자 양성 교육이 중단됐지만 이 교육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평화의 사자가 될 것이며 더 많은 평화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 평화 국제법 제정 지지와 촉구



더불어 IWPG는 DPCW가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제정될 것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지지와 촉구가 아주 중요한데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IWPG는 130개국의 430개의 단체와 MOA와 MOU를 체결하고 평화서약서를 통해 DPCW 10조 38항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CSW)가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IWPG는 '온라인 가상포럼 전시 부스'를 오픈했으며 여성 시민단체들의 온라인 세션 357 곳에 참석해 IWPG의 활동과 DPCW를 홍보했습니다. 세계 많은 여성 시민단체들과 회원들이 평화의 일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C. 플랜트 피스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고 풍족한 환

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미래의 주역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에 IWPG는 차별과 폭력, 분쟁 등 전쟁의 문화를 대신하여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문화를 지구촌에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플랜트 피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에 평화를 그려주었는데요. 2021년에는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국제대회를 열어 28개국 5,093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가해 도화지에 평화의 세상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평화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선물하여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국가 내 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요. IWPG는 미얀마 지부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곧바로 ‘미얀마 유혈사태 종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UN과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모든 사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건 평화입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폭력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D. IWPG 평화의 기념비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영속적인 평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기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IWPG는 HWPL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를 순방하고 노력해온 그 행적을 기리며, 전 세계 여성들의 평화의 염원을 담아

‘IWPG 평화의 기념비’를 각 국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 평화가 확산되고 DPCW 10조 38항이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구하는 일에 힘이 될 것입니다.

E. 세계여성평화센터



IWPG는 ‘세계여성평화센터’를 설립하여 ‘센터’라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평화의 마음이 자라나고 여아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평화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평화를 지켜가고 또 다른 이들을 ‘평화인’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는 독립체가 되어 다시 평화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세계여성평화센터’는 평화의 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도입되어 지역과 국가에 평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평화의 국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성 여러분 IWPG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가족 여러분,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39억 여성 IWPG는 한마음 한뜻으로 HWPL과 함께 세계평화 실현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IPYG 기념사



지구촌 평화의 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PYG 부장 정영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DPCW 실현을 위해 달리고 있는 IPYG의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드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나아갈 계획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청년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병마와 싸워야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기인한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 건강 문제와 사이버 폭력에도 노출됐습니다. 특히 방역을 위한 등교 중단은 160여 개국의 16억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 중단의 피해를 입혔는데요. 교육 중단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폭력과 인권 침해를 겪게 했으며 일부는 자의와 관계없이 무력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또 빈곤층의 학생들은 최소한의 학교 급식도 받지 못해 기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PYG와 협력하는 청년 지도자들은 안정적인 사회 토대를 만들고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게 극복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동티모르의 한 청년은 배움을 열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어와 평화교육을 가르치며 그들의 희망을 이어주었고 남수단의 한 청년은 자전거를 타고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바이러스와 위생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청년주권평화워크숍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선한 의식을 더욱 확대하고자 IPYG는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세계평화의 담으로 볼 수 있는 DPCW 10조의 ‘평화 문화, 교육의 제공’과 그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전 세계 청년들의 토의 플랫폼인 청년주권평화워크숍(YEPW)을 열었습니다. 이 온라인 워크숍에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청년들은 대륙별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현상을 공유했고 그 해결을 위한 협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급증하는 ‘사이버 폭력’ 문제와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을 논의했으며, 토의의 결과로 현재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어떤 괴로움을 느낄까요? 프랑스에서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참관자가 되어보는 가상 비디오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마린 보세리 | 프랑스 | IPYG 프랑스 코디네이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전달할 수 있을

지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인터랙티브 게임으로부터 시뮬레이션 게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설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청년 참가자들이 시뮬레이션의 큰 몰입감과 이야기 전개에서 얻은 교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들이 불러온 결과에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참석자들은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최근 언행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온라인 게임으로 제작해볼 계획입니다.

B. 청년주권평화교실

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활동이었죠?

다음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은 교육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전에도 15세에서 17세의 이 지역 청년들의 절반이 등교하지 못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이 먼저 IPYG에 협력을 요청했고 IPYG는 NGO 차원의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을 기획하여 청년들과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5개국 450여 명의 청년이 함께하고 있는 이 평화 교실에서는 HWPL의 평화교육을 비롯하여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을 배우는 부모교육 약물,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건강교육, 세계화 시대 시민의 소양을 갖추는 세계시민 교육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청년 연합 YFB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 1



모하메드 사피 울 알람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청년연합 설립자

팬데믹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터넷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청년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PYG에서는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을 통해 청년 교육권 문제를 논의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IPYG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은 아주 획기적인 기획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IPYG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교육이 청년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례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YEPC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인터뷰 2



라투 이노케 드라우나 | 피지 | 아루카 피지 단체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과 버림받거나 삶의 방향을 잃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청년주권평화워크숍(YEPW)에 참여하여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을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은 청년들을 위한 아주 놀라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와 보건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이 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HWPL 평화교육과 부모교육입니다. 많은 수강생이 서로 공감하고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주권평화교실(YEPC) 교육을 받은 후 우리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접근법이 좋을지 고민하는 사고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뢰를 쌓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러 활동을 계속해서 펼칠 좋은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

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뷰 3



아돌포 파울로 호르네이 동티모르 | 평화를 위한 청년 단체장

평화교육은 제가 누구인지와 제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은 제 영향력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역할과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평화를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을 통해 우리 단체 회원들이 IPYG와 HWPL의 평화 활동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그리고 자국에서 하는 IPYG와 HWPL의 활동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IPYG에서 진행하는 YEPW와 YEPC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020년에 시작한 YEPW는 현재 전 세계 여섯 개 대륙 50개국에서 60회가량 진행했으며 참여하는 청년들과 단체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근 IPYG와 협력하고 있는 각국 17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의 청년들이 ‘YEPW가 다른 국가 청년들과의 교류,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78%의 청년들은 ‘YEPW를 통해 청년 계층이 사회 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YEPC와 같이 ‘NGO 차원의 비공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98%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DPCW의 실현을 꿈꾸는 IPYG의 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IPYG는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연대를 지속 확대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인 YEPW와 실질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YEPC를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지구촌 곳곳에 차별과 분리가 아닌 평화와 화합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DPCW의 특징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참여했을 때 평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청년과 시민이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더욱 확대 되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국의 청년과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더 자주 전해주시고 IPYG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뛰어갑시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특별 퍼포먼스



*9·18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

지구촌 전쟁 종식 세계 평화 후대에 영원한 유산으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

빛은 어두움을 밝힌다.

국경도 인종도 종교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계 만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 만나러 갈 것입니다.

특별구성1 HWPL 대륙연합 종교연합사무실

행사 개요

- 일시 : 2021년 9월 17일(금) 오전 11:00 - 1:00(UTC)
- 장소 : 온라인 줌
- 식순 : 2021 결산 보고 → 감사장 수여 → 경서비교 토론회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 → 기념촬영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6개 언어로 송출
- 참석자 : HWPL과 함께하는 종교지도자들
- 개최 목적 : 종교적 오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각 종교의 가르침, 각 경서가 말하는 평화의 개념을 깊이 이해함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

행사 내용

1. 2021 종교연합사무실 결산 보고

- 2014년 종교대통합 협약 이후, HWPL종교연합사무실에서는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자기 경서를 가져와 비교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옴
- 종교연합사무실은 2021년 9월 현재 29개국 265개소에서 운영됨
- 팬데믹 상황에도 평화 실현을 이루기 위한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3,698회의 경서비교토론회가 진행됨. 전년대비 약 360% 증가함



- 6월 DPCW 국제법 제정을 위한 LP 캠페인이 인도에서 진행됨, 가족과 지인에게 조항을 소개하고 지지활동 결과를 소셜미디어 및 언론사를 통해 홍보함

2. 감사장 수여

인더팔 싱 인도 | 구루 고빈드 싱 교육연구소 해외 담당 국장



- 2019년 MOU후, 매년 인도에서 HWPL 종교 평화캠프를 협력, 개최
- HWPL주관 종교평화캠프에서 시크교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평화문화전파에 힘쓰

쉬마 칸 네팔 | 평화를 위한 종교 연대 대표



- 2015년이후 네팔 종교연합사무실 토론회 및 월 2회 심층 경서비교 토론회에 참석
- HWPL 평화홍보대사로 네팔 카드만드시 초등학교에 DPCW 평화 벽화그리기 사업 진행
- 다수의 HWPL 평화 기념 행사 운영 및 네팔 HWPL 평화사업발전에 기여

아신 흐타바라 노르웨이 | 버마불교 승려대표위원회 사무총장



- 2019년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한 HWPL 평화 도서관을 설립(최근 4번째 도서관 설립 추진 중 미얀마 정치적 상황으로 중단)
- 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HWPL과 DPCW 소개

임광자 대한민국 | 대종교 총본부 삼일원 수도원주



- 종교연합사무실 정기토론회 참석
- 월8회 이상 심층경서비교토론회에 참여
- 불교민, 민족종교인사에게 HWPL 종교연합 사무실 초청 및 홍보 지속

알라마 사예드 압둘라 타리크 인도 | 종교와 지식 국제단체 단체장



- HWPL의 홍보대사로 2018년부터 인도 현지에서 매년 HWPL의 주요 기념일 마다 행사 개최
- DPCW를 알리고 지지하는 LP캠페인을 인도 전역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아신 사라나 체코 | 라군 부다 비쿠 상하 사원 스님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성명서 작성하여 유럽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성명서 발표

후루카와 신쇼 일본 | 오사카 진언종 우조사 주지스님



- 사원을 종교연합사무실로 제공, 오사카와 고베지역에 종교연합사무실, 경서비교토론회 알림
- HWPL을 지지하는 성명서와 기사를 지역 언론에 게재 HWPL의 평화사업을 OBC 오사카 라디오 방송 통해 알리고 일본 청소년들에게 평화 교육을 소개

은곡 대한민국 | 한국불교극락조계종 대종사



- 은곡선원에 종교연합사무실을 마련하여 현판식 진행
- HWPL과 조국통일선언문 홍보를 위해 노력

“이 증명서는 세계평화와 전쟁종식을 위한 종교연합에 탁월한 공헌을 인정하여 수여됩니다.”

3. 경서비교토론회 :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

문제 1. 귀하의 경서에는 사람들의 죄, 잘못, 부패로 인해 이 땅의 신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까?

(1) 발표자 : 비쿠 부다팔라 인도 | 마하보디 콜라골드필드 지부 이사

장부경에 있는 전륜성 왕경 26번 섹션에 따르면 살인, 거짓말, 험담, 간음, 악의, 어른에 대한 공격심 결여 등의 악행이 만연하여 사람의 수명은 8만에서 100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일들이 널리 퍼진 중생의 수명과 아름다움은 줄어들어 기록돼 있습니다.

(2) 발표자 : 담마피아 인도 | 국제불교연맹 사무총장

불교에서 재앙이라 함은 자연적인 이유 혹은 부정적인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보(카르마, 업식)에 따라서 인생에서 고통을 겪기도,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이 지은 업(선업, 악업)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3) 발표자 : 나dana엘 리 슈미츠 미국 | 신천지 예수교회 시카고 교회 강사

성경의 역사에서 인간의 악행/죄가 너무 커지면 심판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미리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암 3:7).

애 3:33에 따르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십니다(벧후 3:9).

(4) 발표자 : 베다난드 사라스왈티 남아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야 사마즈 영적 지도자

힌두교 철학에 따르면, 심판은 업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뿌리는 대로 현생 또는 다음 생애에 거둘 것입니다. 베다서에 따르면 선을 베풀면 선함을 거둘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둘 것이라 합니다. 신께서 업보의 법칙을 만드셨고, 신의 법칙인 업보는 정밀하고 엄격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굽혀지지 않고 완전히 공정합니다.

(5) 발표자 : 살림 차로 케냐 | 이맘 및 설교자 협회 나이로비 지역 전회장

지구상 사람들의 잘못과 재난에 대한 창조주의 심판이 꾸란에 여러 차례 기록돼 있습니다. 나쁜 결과는 죄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재해는 불신자와 범법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알라 신께서 내리시는 처벌이며 죄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또한 신도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꾸란에 기록돼 있습니다.

(6) 발표자 : 부핀더 싱 구루 테 바하달 시크 사원 사제장

구루그란사합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목’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이기심, 악함,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어리석고, 독단적이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만목은 그들은 업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행복을 빌어도 큰 고통이 따르게 되며, 명예를 잃고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심판)입니다.

문제2. 귀하의 경서에는 앞으로 있어질 온세상에 임할 심판과 재앙에 관한 내용,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결과는 무엇입니까?

(1) 발표자 : 살림 차로 케냐 | 이맘 및 설교자 협회 나이로비 지역 전회장

이슬람 경서 하디스에 ‘재앙과 질병이 퍼질 것이라. 기근과 큰 재앙,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 손에 있는 것을 빼앗게 하시리라.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시리라’(이블 마자 36, 하디스 4155)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2) 발표자 : 마흐무드 모바헤디파 아르메니아 | 블루 모스크 이맘

하디스는 심판 날 전에 징조의 여러 사건들을 말해줍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의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마시 아드-다짤이 지구를 지배해 끔찍한 부패와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후 이맘 마흐디가 나타나 다짤을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잔혹함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살 때,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발표자 : 네흐메 조지스 살리바 레바논 | 하즈미에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 신부님

재앙을 예측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눅 21:10-11, 살전 5:3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의 예시 성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심판의 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 13:32, 마 24:6을 본 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오직 깨어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발표자 : 나dana엘 리 슈미츠 미국 | 신천지 예수교회 시카고 교회 강사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할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 3:10, 계 7장, 계 18장 등). 계 18장에서는 하늘에까지 닿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계 18:5-6). 바벨론에 불 심판이 있게 될 것이며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국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를 들여다본다면 지금 인류가 당면한 모든 고난 끝에 오는 새로운 세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발표자 : 타파스 다스 스웨덴 | 스톡홀름 ISKCON 사원 대표

스리마드 바가바드기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학식 있는 자여, 이 철의 시대인 칼리 유가 때의 사람들은 수명이 짧을 것이다. 그들은 다투고, 게으르며, 잘못된 길을 가며, 불행하며, 무엇보다 항상 불안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6) 발표자 : 베다난드 사라스왈티 남아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야 사마즈 영적 지도자

힌두교는 미래의 일에 대한 예측을 필수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 특히 자연을 개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문제3. 신이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내릴 때, 의인들을 구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내용입니까?

(1) 발표자 : 타파스 다스 스웨덴 | 스톡홀름 ISKCON 사원 대표

주님은 그의 신자(의인)를 사랑하며,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2) 발표자 : 베다난드 사라스왈티 남아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야 사마즈 영적지도자

마하바하타 전쟁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신성한 빛의 화신이었던 스리 크리슈나는 판다바스의 우두머리 아르주나를 이해와 내면의 지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재앙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며 전쟁에서 신의 지혜를 받아들이니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3) 발표자 : 부핀더 싱 구루 테 바하달 시크 사원 사제장

구루를 섬기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의 손에 의한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구루를 만남으로써, 이 세상은 해방이 될 것이며 구원의 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4) 발표자 : 네흐메 조지스 살리바 레바논 | 하즈미에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 신부님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로 “주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경서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며, 평화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최고의 지름길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5) 발표자 : 나dana엘 리 슈미츠 미국 | 신천지 예수교회 시카고 교회 강사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과 재앙의 때에 의인을 구원하고 심판과 재앙을 피할 구원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 때, 롯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의 때, 곧 계시록 성취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고 구원의 처소에 알리러 오실 것입니다.

마 24:15-16에서 예수님은 피난처를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산은 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구원의 처소이자 피난처이며, 이것도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실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결론

각 경서에서는 심판과 재앙의 때가 지나면 회복과 성장의 때가 다시 온다고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회복의 부분은 ‘인간의 선한 행동과 우주의 원리적인 회복’이라는 주장과 대조적으로 ‘모든 일이 전적으로 신의 뜻과 계획, 약속에 의한 것이며 신 자체가 구원 주체가 되거나 신이 보낸 구원자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다.

각 종교 경서의 내용이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생명의 빛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4. 기념촬영



특별구성2 참석자 인터뷰

노모우 뎀벨레 프랑스 | 마디화와야 무살라 청년그룹 | 대표

기념식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2019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부터 저희 단체에 청년들은 HWPL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HWPL의 행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청년과 여성 발제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청년들의 삶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HWPL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언제든지 저를 초대해주시면 제가 참석 가능하다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마틴 바라키 독일 | 마부르그 대학 | 강사

저는 기념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좋은 의미로 기념식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HWPL에서 이렇게 많은 평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물론 더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함자타 아그 디디 말리 | 지속가능한발전 지원 | 대표

다른 나라에서도 참석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생각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발표와 발제들은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희에게 HWPL은 더 이상 단순히 한국의 한 단체가 아니라 국제적인 단체로 세계 각국에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념식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연합을 통한 평화 해결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말리에는 종교로 인한 분쟁이 많습니다. HWPL이 시민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왈리드 벤 라마 튀니지 | 가베스 대학교 | 법대교수

매우 유익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LP 프로젝트 활동의 첫번째 발표자분의 발제를 들을 때 필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분들이 축적한 DPCW 핸드북은 훌륭한 발상입니다. 핸드북이 튀니지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 주바 그레나다 | 그레나다 나사렛 교회 | 목사

평화를 위해 맺은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7주년 기념식에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지 보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지도자로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평화의 일을 시행하기 위해 이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평화의 사자가 되는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HWPL 행사에 참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해와 연합을 장려하는 평화 대화를 위해서 대표님과 HWPL에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다러쿠트니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이슬람사원 의회 | 사무총장

9월 (17일부터) 18일에 열린 HWPL 개최한 기념식의 전체 흐름을 확실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 HWPL 과 일하는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대표님 및 대표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은 위대한 분들임이 확실합니다.

코네 무싸 코트디부아르 | 라 본 봐이 교회 | 목사

거대한 규모의 전세계적 활동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아직은 마치 물방울 하나 같아 보이지만 이미 큰 일입니다. 정말로 멋집니다. 활동들이 평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발제가 좋았습니다. 대표님의 발제는 자신의 아이에게 말해주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정말로 즐겁게 대표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과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를 하나로 이어주는 대표님의 말씀이 좋았습니다.

올란도 개일레 자메이카 | 자메이카 사우스필드 큐어 세인트 마크 세인트 메리 성공회 | 담임목사

이 대표님께서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다양한 종교인사들을 만나서 모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언급한 부분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쉬마 칸 네팔 | 평화를 위한 종교 연대 | 대표

정말 멋진 행사였고, 발표들도 아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제와 발표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분들은 고위 지도자였습니다. HWPL은 모든 종교와 함께하려고 노력했고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이미 흥미로웠습니다. 이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종교의 성찰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함께 동참하여 상을 받은 평화 활동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HWPL, 소피아, 토마스, 저를 지지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HWPL이 평화 활동을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 종교, 화합을 위해 일하고 있기에 HWPL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HWPL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가족과 같이 느껴집니다. HWPL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HWPL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는 매일 무언가 배우고 있고,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우드 올라토쿤보 시츄 노이비 나이지리아 | 남서 나이지리아 무슬림 공동체 | 사무국장

가장 먼저 이 기념식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협력의 연장

선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기념식에 참석한 많은 지도자분들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대표님과 다른 참석자분들도 말씀하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양한 참석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당한 업적인 대표님의 일에 대해 많은 지도자들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규모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행사였고 성공적인 행사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청년들의 참여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전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인 하늘 문화의 중요성을 이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로레리에 가오어 필리핀 |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
담임목사

이 대표님과 그리고 비록 다른 단체에 속해 있지만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화의 사자들과 하나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HWPL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평화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이 대표님의 말씀이 이번 기념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헨드라 다스 필리핀 | 크리슈나 의식 국제 사회 | 사원 대표

이 대표님의 발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서에는 이처럼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범인(凡人)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에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대표님의 평화 메시지는 HWPL로 사람들을 모여오게 합니다. 저에게 이는 매우 숭고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평화를 전하는 제 바람에 있어서, 이를 전하는 것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제가 믿는 경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 모두 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 다른 생명체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우르콰르트 데 바로스 우루과이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성공회 | 주교

중요로 HWPL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활동가분들과 귀빈 분들을 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대표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 수 있어서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온라인 행사로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있을 대면 행사도 기대가 됩니다.

투이 뉴엔 미국 | 텍사스 카오다이 사원 | 성직자

이번 기념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평화의 빛이 계속해서 빛나게 하고 진리를 이어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오직 사랑만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엔리케 호세 알보르노스 카노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주 영국 성공회 | 주교

저는 HWPL 가족들과 귀빈들을 뵈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줌으로 보인 것을 보고 기쁘면서 놀랐습니다. 모두의 성실함과 진심이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힘차게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시에드 무함마드 아쉬라프 노르웨이 | 노르웨이 알 누르 이슬람 센터 | 종교 업무 담당자

디지털 시대 정말 좋은 평화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해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를 알게 해 주는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였다. 하세광의 슬로건인 we are one을 실현하는 멋진 행사였다.

법진스님 대한민국 | 반야선원 | 주지스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열의와 정성으로 세계평화와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HWPL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종교 토론이 이어져 왔음에 희망과 미래가 보여집니다.

하나 히흘리코바 체코 | 파르두비체 다쉬츠키 고등학교 | 교사

저는 교사 분의 사례발표가 좋았습니다. 채팅 창에 메시지들을 보았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념식의 모든 부분이 전문성을 갖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우마르 게이타 프랑스 | 유네스코 | 말리 파견단 대사

기념식은 훌륭했고,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HWPL이 이룬 발전, 특별히 평화교육에 있어서의 발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원동력을 만들어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숭고한 일입니다.

일라 사니 니제르 | 클럽 유네스코 유에이엠 | 사무총장

평화는 발전과 사회 화합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도 평화 없이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이 낮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한 행동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 의한, 그리고 빛과 하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위한 만인의 평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드라고미르 마리안 루마니아 | 마스터피스 루마니아 | 대표

몇 년 전 스타디움에서의 행사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협력이 조금 더디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평화를 이루는 중심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투쿤다 페네로프 우간다 | 절제희망국제기구(AHI) | 여성 대표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 행사를 참여한 일이 최근 일들 중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멈추지 않았고 전세계 평화의 행보와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여성에 대한 활동을 강조해주었는데 누구나 똑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정신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HWPL 평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평화 세상으로 가는 길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바솔로매 롬바시 와니키나 케냐 | 케냐 교육부 | 교육정책 부국장

오늘 행사는 매우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대표님의 신념과 지시 아래 활발히 실행되고 있는 평화의 행보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HWPL의 평화 활동의 관점과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는 평화 활동들을 통해 어떻게 자국의 평화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IWPG 여성 그룹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키며 평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HWPL의 DPCW를 바탕으로 전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모든 평화 활동에는 평화교육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담고 평화의 사자로서 우리 국가와 지역을 위해 HWPL과 함께 지속적으로 평화 활동을 하겠습니다.

리테 라왈라이 피지 | 아루카 피지 | 과부 프로그램 매니저

저는 기념식의 모든 부분을 즐겁게 보았습니다. 기념식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YEPC를 통해서 기념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념식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니콜린 와제 카메룬 | 여성 역량증진과 발전을 위한 경로 | 설립자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교육을 채택한 유연성은 평화 문화를 전파하는 과정과 그 중요성에 대한 전념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만희 대표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사랑과 관심을 쏟아 내셨습니다. 이 대표님의 신성한 영감의 원천인 별은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된 근간과 그 진실성의 흔적입니다. 사례 발표와 영상들은 세계에 DPCW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인권 세미나는 평화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줬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16과 17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DPCW 프로젝트가 얼마나 현존하는 인권 및 평화 관련 법률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법률들에 대중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줍니다. 평화 캠프는 국제 시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차이와 공존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 되는 관점을 바꾸어 평화, 화합, 공존이라는 종교적 미덕을 심어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마르크 보게르츠 독일 | 보게르츠 프로덕션 | 예술 총괄자

저는 HWPL의 단단한 네트워크와 HWPL이 이러한 시기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념식의 모든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의 발제에 가장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북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냉 로 자쿱 미얀마 | 네인(샤롬) 재단 | 대표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와 2021년 2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다양한 집단 사이에 뿌리깊은 사회적, 정치적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 미얀마 내에 평화 활동을 위해서 저는 HWPL과 IWPG 대표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자부라호 테오도릭 르완다 | 르완다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 대표

이번 기념식은 내용이 매우 풍성하고 유익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평화 문화로 교육하고, 평화를 심어주고, 평화 문화 및 기타 여러 요소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계 평화와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HWPL과 또 IWPG와도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큰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 협력이 이행되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IWPG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에블리나 동티모르 | 알롤라 재단 | 변호 프로그램 관리자

저는 HWPL과 IWPG는 비전과 미션을 이루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특별히 팬데믹, 정치, 청년, 교육, 종교, 언론, 시민사회 등 국제 상황을 바라보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산두니 라산기카 자야라스나 스리랑카 | 켈라니아 대학교 평화와 분쟁해결 학과 |
대학생

단순한 행사가 아닌 매우 유익한 행사였다. 마치 평화 공원에 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했고 모두가 평화에 동참하게 하는 메세지들이었다. IWPG와 함께 평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 평화 교육이 스리랑카에도 정착될 것이다.

모하메트 딩구이 모로코 | 파노라포스트 | 기자

각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야시르 마수드 파키스탄 | 유네스코 | 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자문위원

패널들은 세계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와 세계가 직면한 잠재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마리 제인 오 발라구엘 필리핀 | 디지엠제이온라인닷컴 | 앵커

이와 같은 아주 결실이 있는 활동이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평화 안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HWPL에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로즈 버날레스 필리핀 | 디엑스알디손샤인라디오 | 뉴스앵커

가상 공간에서 본 전세계에서 온 참석자들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다음 행사 또는 머지않아 있을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행사를 기대합니다. 팬데믹이 있다할지라도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을 계속될 것입니다.

프락 삼포스 캄보디아 | CNC | 수석프로듀서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문제를 알고 접근하기 위해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여전히 대유행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규모의 평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사회적 요인의 모든 것들이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록1 인권세미나

인권 세미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소개

작년 9월부터 HWPL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된 인권 침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정 폭력, 여성 인권, 소수 종교 등을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75개국, 2,30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HWPL은 온라인 인권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지역단체, 시민이 교류하며 일상 속 평화 이슈를 해결하는 평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국의 다양한 계층과 단체를 연결하여 평화의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평화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개요

기간: 2020.09 ~ 2021.06

대상: 75개국, 2,300여 명

목적

- 팬데믹 상황에서 대두된 인권 침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
- 정부와 지역단체, 시민이 교류하며 일상 속 평화 이슈를 해결하는 평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 논의

행사내용 (회차별 세부 사항)

순서	주제	참여자 (국가 및 참여자수)	핵심 내용
1	서아프리카 평화사업 발대식 (2021.03.27.)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케냐, 스웨덴 / 154명	- 서아프리카 평화교육 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속적인 평화교육 사업을 이행할 것을 지역사회 앞에서 약속하는 행사 - 평화사업 주체자들의 서명이 들어간 공동성명서를 기록으로 남겨 평화의 유산이 되게 하고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한 행사
2	HWPL 서아프리카 평화발전 회의 (2021.02.27.)	나이지리아, 가나, 말라위 / 113명	2021년 HWPL 아프리카팀 평화사업을 안내하고, 다른 국가들의 HWPL 평화교육 사례 공유를 통해 서아프리카에도 평화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회의
3	HWPL 아프리카 평화사업 정책회의 (2020.12.21.)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 80명	HWPL의 평화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11월 뉴스레터 브리핑과 아프리카팀 평화 사업 정책 발표 및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4	HWPL 아프리카 정기회의 (2020.11.30.)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카메룬 / 91명	HWPL의 평화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10월 뉴스레터 브리핑과 아프리카 내 지속 가능한 평화사업을 함께 기획하고자 2021년 HWPL 평화 사업 정책 공모를 안내하는 회의
5	HWPL 카리브해 각료급 평화포럼 (2020.10.29.)	자메이카, 아이티, 바베이도스, 안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미국, 도 미니카 / 263명	카리브해 지역의 각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평화발전을 위해 각 국에서 실행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하고 평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순서	주제	참여자 (국가 및 참여자수)	핵심 내용
6	대한민국에 대한 서밋 - 코로나19와 인권침해 (2020.09.10.)	가나, 나이지리아 / 73명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소수 집단이 처한 인권 피해에 대한 인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7	2021 중동 웨비나 : 팬데믹 시대의 인권 침해 극복 (2021.06.26.)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 / 34명	코로나19로 발생한 중동지역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정치,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
8	2021 이집트 웨비나 (2021.03.06.)	이집트 / 29명	HWPL 2월 활동 공유와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 극복 방안과 이집트 사회의 지속적인 평화 문화 정착 방안 논의
9	2020 레바논 웨비나 : 코로나19, 시민실천으로 지키는 인권 (2020.10.30.)	레바논 / 25명	고위급 주요 발제자와의 질의문답식 진행으로 이루어진 웨비나, 코로나 이후 일어난 사회적 인권 문제를 재조명, 시민들의 평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 독려
10	코로나 이후 인권 침해 극복을 위한 웨비나 (2020.10.29.)	이라크 / 31명	HWPL의 2020년까지의 활동 공유. 코로나 이후 위협받는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인권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웨비나
11	신년 다짐 및 코로나의 위기에서 청년들에 의해 울려 퍼지는 각 국가별 인권 차별 사례 웨비나 (2020.12.26.)	방글라데시, 인도 / 26명	- 발제자들이 각 국가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음. - 참석한 인사와 HWPL 측에서 신년 다짐을 발제하였음.

순서	주제	참여자 (국가 및 참여자수)	핵심 내용
12	인문학 속 하위계층의 인권운동을 바탕으로 한 인권 향상을 위한 웨비나 (2020.11.28.)	인도, 방글라데시 /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PL의 인문학 속 하위계층의 인권운동의 사례인 레미제라블의 소개 및 가치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모두가 잠재적인 하위계층 및 평범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생각해봄으로서 인권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함 - 한국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통해 인권운동의 중요성을 상기해 봄
13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인권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 (2020.09.26.)	인도 /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인권을 위한 무슬림 결혼 법안 통과 과정 및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공유 - 무슬림 여성 인권의 상황 및 인권과 교육의 중요성을 발제 - 파키스탄의 여성 인권 상황 공유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 - 강제개종 여성 피해사례를 발제
14	8조에 근거한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권리 (2020.09.19.)	인도 / 2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한 종교 탄압에 대해 논의하고 종교의 자유가 중요함을 웨비나에 참석한 인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알려줌. - 학생들의 인권, 종교 자유에 관한 한국의 현실에 대하여 논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함
15	평화를 향한 쉽 없는 전진 2부, 우리가 함께 만드는 2021(수단) (2020.11.28.)	수단, 르완다, 남수단 / 12명	수단, 남수단, 르완다의 온라인 평화 사업에 대한 논의

순서	주제	참여자 (국가 및 참여자수)	핵심 내용
16	평화를 향한 쉽 없는 전진 2부, 우리가 함께 만드 는 2021(미얀마) (2020.11.28.)	미얀마, 동티모르, 태국 / 12명	미얀마, 태국, 동티모르의 온라인 평 화 사업에 대한 논의
17	평화를 향한 쉽 없는 전진 1부, YMETM(동티모르) (2020.10.31.)	동티모르 / 3명	동티모르의 온라인 평화 사업에 대 한 논의
18	평화를 향한 쉽 없는 전진 1부, YMETM(미얀마) (2020.10.31.)	미얀마 / 6명	미얀마의 온라인 평화 사업에 대한 논의
19	평화를 향한 쉽 없는 전진 1부, YMETM(수단) (2020.10.30.)	수단 / 11명	수단의 온라인 평화 사업에 대한 논의
20	모두를 위한 존엄성과 정의: 인권과 전쟁 (2021.02.05.)	기니, 감비아, 라이 베리아, 베냉 / 11명	전쟁으로 생기는 직간접적 인권침해 에 대해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
21	세계적 팬데믹 속 평화의 목소리 (2020.10.30.)	가이아나, 감비아, 라이베리아, 미국, 베냉, 스리랑카, 시 에라리온, 인도, 코 모로 / 167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전 례 없는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 운데, 국경, 민족, 인종, 종교를 초월 해 하나된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 고자 함

순서	주제	참여자 (국가 및 참여자수)	핵심 내용
22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인권 웨비나: 이스탄불 협약이 영향이 있었는가? (2021.04.16.)	몰도바, 불가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독일, 말리, 코트디부아르 / 132명	주제1. 국가별 이스탄불 협약 비준 현황 및 국가 내 정부 및 시민들의 의견 주제2.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해결을 위해 유럽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행사의 참석한 발제자 및 인사들은 유럽차원 캠페인 마련의 필요성, 캠페인 진행의 한계점 및 차별화 전략, 캠페인 아이디어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3	피스토크 (2021.05.29.)	네덜란드, 한국, 라트비아, 적도기니, 미얀마 / 10명	평화 활동 내용 및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인사들의 견해를 나누고 평화를 위해 함께 힘써 나가자는 의지를 다짐
24	관용과 연대- 단일 사회로서 COVID-19와 싸움 (2020.11.17.)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63명	-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 문제 논의 - 특정 종교, 교단, 단체, 집단 뿐 아니라 코로나로 발생되는 인권 침해적인 사례 공유 및 논의 - 코로나 방역 관련 시민 의식을 위한 범 시민적 캠페인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25	코로나 19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인권 (2021.02.20.)	콩고민주공화국, 한국 / 24명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
26	주제토론 : 코로나 19 유행과 파키스탄 소수인권 (2021.02.19.)	파키스탄, 한국 / 16명	파키스탄의 현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모색함.

순서	주제	참여자 (국가 및 참여자수)	핵심 내용
27	주제토론 : 코로나 19 유행으로 발칸 반도에서 대두된 인권문제 (2021.02.19.)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한국, 미국 / 35명	발칸 각국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코로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 현 시대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모색함.
28	평화의 문화 만들기: 하나된 목소리는 더 멀리 전달된다 (2020.12.12.)	피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 11명	인권·청년·여성단체가 모여 국가별 주요 사안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논의
29	동아프리카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 연대 및 시민 교육 강화 (2020.12.12.)	케냐 / 26명	- 발제 주제 1) 동아프리카의 인권 문제공유 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중요성과 시민 교육의 필요성 3) 인권선언문과 국제법으로 접근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4)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 성공했을까? 5) 시민 교육을 통한 DPCW 비전과 발전 방향 모색 - 토론을 통해 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30	아프리카의 인권과 코로나 : 계층별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2020.11.28.)	우간다, 캄보디아, 케냐 / 85명	- 인권관련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논의할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아프리카의 인권 이슈를 공유함. - 시민단체, 청년단체, 종교인, 법조인이 바라본 팬데믹 상황에서 있었던 인권 문제 들을 논의하고 QnA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

행사사진



부록2 종교평화캠프

소개

‘HWPL 종교평화캠프’는 전 세계 청년들이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간의 대화, 문화 교류 등을 통하여 종교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종교 공동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교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종교들의 역사를 배우고 종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17년 이후~현재 지속 운영중
- 대상: 전 세계 청년(2021년, 41개국 214명 참석)
- 목적
 - 종교 및 문화 교류의 장 확산, 종교간 차이 이해 및 갈등 극복, 시민사회계층내 평화 문화 전파, 청년역량강화
- 주요내용
 - 종교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 및 문화 체험
 - 종교적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

2021 활동내용

1) 2021 HWPL 종교평화캠프 특징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캠프는 사원이나 학교 등에 모여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특정 국가와 지역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음
- 2021년 HWPL 종교평화캠프는 팬데믹 상황 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인종 및 국가를 초월한 대륙 연합 캠프로 진행됨
- 주요 논의 주제: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 사회의 역할

2) 프로그램 예시(식순)

1일차

시간	활동	세부내용
17:00~17:15	오프닝	- 개회 - 축사 영상 - HWPL 평화활동 영상
17:15~17:35	세계 종교 소개 1	- 3개 종교 소개 영상 시청 - 사원 소개 - 종교 문화 소개
17:35~18:35	그룹 활동 : “역지사지” 롤플레이 보드게임	- 소수 종교의 삶 (부당한 대우, 핍박 등) 느낄 수 있는 보드 게임 - 인터뷰와 소감 발표 시간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연결시키기
18:35~18:55	그룹 프레젠테이션	- 조별 나눔 시 가장 대표 한 명씩 선출하여 발표
18:55~19:00	공지	- 다음날 준비 사항 등 공지

2일차

시간	활동	세부내용
17:00~17:05	오프닝	- 전날 활동 내용 리뷰 - 당일 활동 소개
17:05~17:20	세계 종교 소개 2	- 3개 종교 소개 영상 시청 - 사원 소개 - 종교 문화 소개
17:20~17:30	종교 퀴즈	- 세계 종교 소개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퀴 즈 구성
17:30~18:15	그룹 토론 :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 사회의 역할”	- 토론 1. 민다나오 분쟁을 일으키고 심화시 킨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토론 2.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분 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8:15~18:50	그룹 프레젠테이션	- 조별 대표 선출하여 각 조에서 나온 의견 수렴하여 발표
18:50~18:55	참가자 소감 발표	- 자원자 1명 소감 듣기
18:55~19:00	마침	- 클로징 멘트 - 기념 사진 촬영

3) HWPL 종교평화캠프 진행현황(2021)

- 41개국 10번의 온라인 HWPL 종교평화캠프 진행

진행일자	참여국가명 (참여국, 참가국)	참여국 수	참여인원수
06.06.	인도	1	64
07.17.~07.18.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 피지, 독일, 가나, 인도, 이라크, 레바논, 레소토,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16	67
07.24.	핀란드, 인도, 스웨덴	3	22
07.29.~07.30.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한국	5	19
07.30.	미국	1	44
08.12.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불가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인도, 체코,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튀니지, 헝가리	15	92
08.21.	남수단, 동티모르, 라오스, 르완다, 부룬디, 수단, 인도, 카메룬, 태국	9	44
국내			
07.20.	대한민국 (광주)	1	30
07.20.	대한민국 (부산)	1	50
08.06.	대한민국	1	56

4) 행사 진행 사진



HWPL 종교평화캠프 참여 문의 : info@hwpl.kr

부록3 언론포럼

평화의 목소리-코로나19와 사회 변화에 대한 언론의 시각

소개

코로나19 팬데믹은 경기 침체 및 성장, 정치적 불안과 통합, 기후 변화에 직면한 환경 정책, 소득 격차 및 사회복지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대응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한 양상을 초래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예상한 것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뒤섞인 현상을 마주하며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고, 언론인들이 가진 사회 동향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검토하고자 본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기간: 2021년 2월 13일, 총 1일
- 대상: HWPL 협력 해외언론 인사(15개국 56명 참석)
- 목적
 - 언론 인사들 간의 전문적 소통 강화 및 언론의 평화 구축 기여에 대한 심층 토론 진행
 - HWPL이 지향하는 평화 인식 공유를 위한 포럼의 정례화
- 주요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사례 논의

행사내용

1) 코로나19와 사회 변화 사례

남아시아의 사회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19



자베드 알리 칼호로

파키스탄 | PTV World 선임 프로듀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종 플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재앙과 같은 질병들을 목격해왔다. 현존하는 바이러스 위협에 집단으로 맞서 싸우고, 팬데믹 이후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인포데믹 시대의 미디어



나빌 티르마지

파키스탄 | 아시아 태평양 방송개발기구 방송컨설턴트 & 프로그램 매니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있어 ‘잘못된 관념과 우려,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언론의 책임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함께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정보 퇴치 사례를 통해 국제 언론 종사자들부터 건강한 저널리즘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하천에 기인한 사망률과 우리의 책임



임нул 카움 소니

방글라데시 | Risingbd 선임 부편집장

현재 코로나19 현상은 복합적인 다양한 결과를 낳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봉쇄로 인해 인명 피해와 경제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하천의 오염도는 매우 감소하여 생물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는 자신의 미래를 잡아야 한다



오케치 프란시스

남수단 | 더 던 뉴스페이퍼 부 편집국장

남수단은 2011년 지구촌에서 가장 최근에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이지만 2년 후 정치적 위기로 인해 피를 흘리게 되었다. 국가와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의료 서비스 및 경제 성과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구호 물품보다는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다른 격동의 2021년 속에서 평화 정착시키기



수팔락 간자나쿤디

태국 | 더 네이션 뉴스페이퍼 전 편집장

태국은 여전히 치명적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학생 민주화 시위는 2월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킨 후 이웃 나라 미얀마로까지 확대되었다. ‘국가에 진정한 민주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라’는 항의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 권고사항

Q&A 세션, 토론 및 의견 개진 후, 참석한 언론인들과 HWPL은 언론의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행사의 결과로 다음의 10가지 권고 사항에 동의함

- 1 팬데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잘못된 정보 속에서,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유된 데이터 및 연구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위한 소통 채널의 재건이 요구된다.
- 2 언론사로부터 잘못된 정보가 생산되고 있음을 목도하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언론은 사실 확인을 거친 뉴스를 생성하는 역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언론은 부정확한 정보로 만들어진 신념이 가정, 공동체 및 국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개인이 부정확한 정보와 구별되는 지식 및 필요한 기술

을 습득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형성해 나갈 책임이 있다.

4 언론이 지구촌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소통 채널임을 확인하며, 언론인은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관련 사회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5 국제 언론인은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언론인 양성 및 뉴스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는 역량 구축 및 정책 결정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지역 및 국가 언론 기관을 포함한 지구촌의 여러 주체들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6 정보 출처를 다루는 언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맥락을 이해하고 뉴스 보도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지양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도를 할 수 있다.

7 환경 파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여, 환경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작 없이 환경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8 전염병이 질병 및 비 질병 피해를 모두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국제 언론인들은 특히 구호, 보건 서비스 및 공교육과 같은 기본적 필요의 상실로 고통받는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

9 민주주의 체제가 선거, 법치, 민주적 기관, 인권 기구,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의 수단으로 수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언론인들은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 민주적 가치를 촉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0 세계 평화와 인간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서명한 국제 문서의 목적과 원칙을 상기하면서, 국제 언론인들은 평화를 위한 국제법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호소할 수 있도록 평화에 관한 소식을 국제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1 HWPL 언론 포럼

- 총 6건, 26개국 175명 참석

일자	주제	참여국가 및 참여명수
21.02.13.	코로나19와 사회 변화에 대한 언론의 시각	한국, 남수단, 태국, 방글라데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카메룬, 르완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잠비아, 소말리아 총 15개국, 56명 참석
21.02.20.	태평양 국가들의 언론인이 바라본 코로나19와 현지 주요 이슈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미크로네시아 총 4개국, 16명 참석
21.02.27.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의 뉴스 산업 변화 - 어려움, 기회, 모범 사례를 위한 조언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총 4개국, 38명 참석
21.07.24.	팬데믹 시대에서 평화 저널리즘에 대한 방해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1)	네팔 총 1개국, 26명 참석
21.08.14.	팬데믹 시대에서 평화 저널리즘에 대한 방해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2)	네팔 총 1개국, 15명 참석
21.08.21.	팬데믹 시대의 언론인이 직면한 상황과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의 언론의 역할	인도네시아 총 1개국, 24명 참석

4) 행사사진



HWPL 언론 포럼 참여 문의 : info@hwpl.kr

부록4 온라인 평화교사 양성교육

소개

COVID-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학교가 폐쇄 및 축소 운영되었고,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HWPL은 <온라인 평화교사 양성교육>을 준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사 양성교육의 목적은 팬데믹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혐오, 갈등, 차별,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요

- 기간: 2020년 1월 ~ 현재 진행중
- 대상: 평화교육에 관심있고, 평화교사로 성장하여 활동할 의지가 있는 자.
- 참여 누적: 총 31개국 2,023명 (2020.01.01.~현재)
- 모집 방법: 온라인 SNS 신청, 교장 추천 등
- 목적
 - 팬데믹 상황에서 심화된 청소년 혐오, 갈등, 차별,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운영 능력을 강화

주요내용

1) 평화교사 양성교육

A. 교육 커리큘럼(주제와 핵심 내용)

과목	과목명
제1과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
제2과	천지만물이 조화로운 이유
제3과	인류 세계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원인
제4과	인류 세계의 질서와 관계 회복
제5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과목	과목명
제6과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배려
제7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제8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
제9과	웃어른에 대한 예의
제10과	선조들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제12과	인류가 고대하던 평화의 완성

B. 기타 세부 내용

- 교육 수료 및 실습

- 1) HWPL 평화교육 내용을 국가 또는 지역 교육 과정에 반영
- 2) 각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HWPL 평화교육 수업 진행
- 3) IPYG와 연계해 각국 청년 평화 인재 양성
- 4) 각종 HWPL 행사 참여 및 DPCW 지지 활동

2) 사진

- 평화교사 양성 교육



- 평화교육 수업 참여 중인 학생들



- MOU 체결 사진



* 평화교육 브로슈어



3) 평화교사 임명 및 MOU

국가별 평화교사 수: 총 30개국 418명

국가	명수	국가	명수
그리스	1	이라크	6
나이지리아	115	인도네시아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10	이스라엘	1
네팔	14	인도	26
루마니아	17	잠비아	28
마다가스카르	1	조지아	3
말리	5	체코	1
미국	2	케냐	56
미크로네시아	1	코트디부아르	19
방글라데시	7	크로아티아	2
브라질	1	탄자니아	1
세르비아	1	튀니지	5
아프가니스탄	3	파키스탄	3
에티오피아	3	프랑스	2
우간다	5	필리핀	67

MOU : 총 36개국 229개소

국가	분류	개소	총개소
감비아	기타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초등학교	9	14
	고등학교	4	
	기타	1	
네덜란드	기타	1	1
네팔	초등학교	1	7
	종합학교	5	
	대학교	1	
대한민국	기타	1	1
루마니아	중학교	3	17
	고등학교	6	
	종합학교	8	
르완다	중학교	2	2
마다가스카르	고등학교	2	3
	대학교	1	
말레이시아	유치원	1	6
	초등학교	5	
말리	중학교	1	2
	대학교	1	
몽골	유치원	1	3
	초등학교	1	
	대학교	1	
미국	초등학교	1	5
	종합학교	2	
	기타	2	
미얀마	종합학교	1	1
방글라데시	대학교	1	1

국가	분류	개소	총개소
부룬디	초등학교	1	4
	중학교	3	
부탄	고등학교	1	1
북마케도니아	초등학교	1	1
아르메니아	대학교	1	1
아프가니스탄	종합학교	1	1
에티오피아	대학교	12	13
	기타	1	
우간다	초등학교	2	4
	종합학교	1	
	기타	1	
이라크	대학교	3	3
이스라엘	중학교	2	3
	종합학교	1	
인도	초등학교	3	11
	고등학교	1	
	종합학교	6	
	대학교	1	
인도네시아	대학교	9	9
자메이카	기타	1	1
잠비아	초등학교	1	9
	종합학교	2	
	기타	6	
조지아	고등학교	1	2
	종합학교	1	
캄보디아	초등학교	1	19
	중학교	4	
	고등학교	12	
	대학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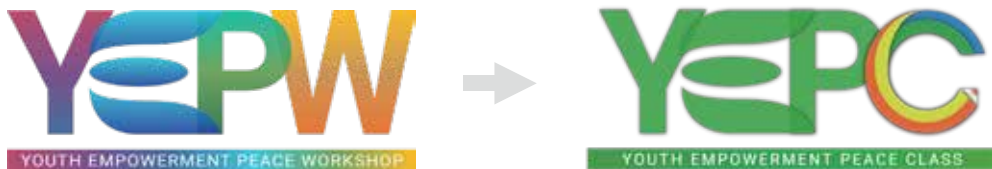
국가	분류	개소	총개소
케냐	초등학교	2	13
	중학교	6	
	고등학교	3	
	대학교	1	
	기타	1	
코모로	기타	1	1
코트디부아르	초등학교	1	4
	중학교	1	
	고등학교	1	
	기타	1	
태국	대학교	1	1
파키스탄	고등학교	1	4
	종합학교	3	
팔레스타인	중학교	1	2
	대학교	1	
필리핀	초등학교	8	58
	고등학교	1	
	종합학교	2	
	대학교	46	
	기타	1	

부록5 청년주권평화교실(YEPC)

청년주권평화교실(YEPC)란?

IPYG와 청년단체장들이 청년들의 교육 기회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획한 평화교실로, NGO 차원의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년주권평화교실(YEPC Youth Empowerment Peace Class)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37개국 500여 명의 청년이 함께하고 있으며 최근 9월 1기 수료자를 배출했고 현재도 활발히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사업배경



IPYG는 최근 YEPW에서 각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으며 많은 청년들이 제기한 문제는 ‘청년의 교육 기회 부족’였다.

* 대륙별 워크숍 진행 주제

- 아프리카 : 교육 인프라 부족과 교육기회 제공 방안
- 아세아-오세아니아 : 환경오염, 테러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교육권 박탈 상황과 교육기회 제공 방안
- 유럽-아메리카 :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의 예방

유네스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Out of school Youth)’ 조사에 따르면 약 16-19세 (upper secondary school age)의 청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율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42%, 빈곤층의 경우 62%의 청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와 중앙, 남아시아 경우 각 38%, 30%의 청년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교육 기회 제공 문제는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며 특히 COVID-19의 문제로 많은 나라에서 공교육의 운영이 어려워져 많은 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YG는 전 세계 청년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작했으며, 그중 청년들의 교육 기회 부족의 현실에 귀 기울여 만든 NGO차원의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청년주권평화교실(YEPC)이다.

사업개요

- 운영 기간 : 2021년 7월 ~ 현재 지속 운영 중
- 대상 : IPYG에 가입된 청년이면 지위 연령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
- 목적
 -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촌 모든 청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잠재력 있는 청년 리더를 발굴
 - 슬로건 ‘당신을 위한, 청년을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
- 교육 내용
 - 필수 수강과목 : HWPL 평화 교육
분쟁 해결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며 학습자가 평화의 가치관을 내면화 하여 각 개인이 평화를 전하고 실천하는 평화의 사자가 되도록 교육
 - 선택 수강과목 : 사전 신청서 작성 자들에게만 제공
 - 1) 세계시민 교육 : 지구촌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소양과 리더십 교육
 - 2) 건강 교육 : 마약과 흡연 등에서 청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
 - 3) 부모 교육 : 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 기대 효과
 - 교육 수료생들이 수료 후 지역사회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접 수업을 하며 지구촌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발전할 수 있는 지식공유 창, 실천형 플랫폼으로 구축
 - ‘Leave no one behind’라는 UN의 SDGs의 목표처럼, YEPC를 통해 배움의 권리와 기회를 누구든지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SDGs의 4번째 목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교육’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참여 방법



POINT 1 IPYG 가입

- IPYG에 가입된 청년이면 누구나 YEPC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IPYG가입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POINT 2 YEPC 신청

-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 작성된 정보로 수강일자, 워크북, 수강 링크 등을 보내 드립니다.



POINT 3 온라인 수강

- 수강링크를 통해 공지된 시간에 들어와 수강해주세요.

* 약 2달간 교육 수강 후, 필수 과제 제출 시 수료증 교부
(본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제3자에게 교육하는 실습 과정이 포함됨)

사업진행 현황

총 4대륙 37개국 507명

참여 대륙	참여국가(참여국, 참가국)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세이셸,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유럽	루마니아
오세아니아	피지, 호주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총 4개 대륙	총 37개국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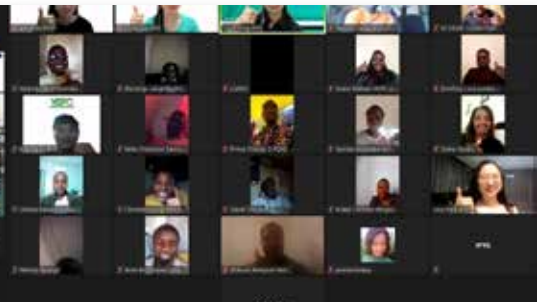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평화교육 실행



SNS통해 평화교육 홍보



아시아_YEPC 수강 사진



아프리카_YEPC 수강 사진

인사 소감

루벤 사페틀루 잠비아UN청년연합 | 사무차장, 다시 생각하는 청년 플랫폼 | 회장

YEPC의 교육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나 자신의 영향력과 의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구촌에서 서로 화합하며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리제리오 마테우스 소아레즈 다 실바 다이아스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 전 학생회장

YEPC에 대한 교육 의도가 매우 유익하다. 이와 같은 교육들이 반복돼서 진행하며, 특히 교육 소외 지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WPL 평화교육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평화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며 발전과 정의의 기반이 된다. 사회가, 가정, 국가가 안정이 된다면, 평화로워진다면 평화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며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은 좋은 기반 시설, 부족한 자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티안 카손데 잠비아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 회원

잠비아에서 마약은 청년들에게 매우 일반적이지만 청년들은 마약의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YEPC 교육을 통해 마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용 시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되는지 등에 대해 배워서 좋았다. 동료들에게도 YEPC를 통해 배운 내용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문의

공식 메일 : info@ipyg.or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yg.org>

인스타그램 : <https://instagram.com/p/CQLYIFyBeme/>

부록6 행사 홈페이지 및 콘텐츠

<http://worldpeacesummit.org/>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18 September 2021
20:00KST (15:00AM GMT)
Zoom Meeting/Online

**Advancing the OPCW's Peace Agenda in a New Normal: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World Peace Summit is an important occasion for us to reflect on the progress we have made in the past seven years and to look ahead to the future. The summit was a landmark eve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peace movement, and it has inspired many people to take action for peace. We are proud to have been able to bring together leaders from so many different backgrounds and cultures, and we are confident that the actions we have taken will lead to a more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Program

September 17
20:00 HWPL Intercontinental Online WAPP Office Meeting


September 18
20:00 Opening
 Congratulatory Messages
 HWPL Progress Report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Cases of the "Legitimate Peace" Project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Cases of Alliance of Religion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Cases of Citizens of Peace
 Commemorative Video for the 7th Anniversary
 Commemorative Speech by IPHG General Director
 Commemorative Speech by HWPL Chairman
 Message of Peace (Commemorative Speech by HWPL Chairman)
 Special Performance
 Closing

September 19
14:30 2021 International Women's Peace Conference

Actual Cases

Mr. Arthur Rahman Deputy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Ghana Studies Ghana	Dr. Miskan Rahman DIPU President Bangladesh	Mr. Sufail Rahman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Shah Bakhsh Waseem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Shrikan Indubhawan Das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SUNDEK The Founder of the Peaceful Light Cen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Shariq Sharma Head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John Barber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r. Florent Pauplier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Gaur Prakash Kumar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John Benedict Bonfante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Octavio Alfred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r. Sughitkhan Begmatkhonov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r. Raza Inayat Durrani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r. Adhitya Parth Saranya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uhammad Saif Ull Khan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s. Marina KOURNIEVA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s. Lancy Varghese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s. Min Min Myu Han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Ms. Awan Laxmi Devi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Pakistan

Congratulatory Messages



Dr. Sonalia Arzaga Semario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R.E. Lucas Edwin Gutierrez Borboa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slims" Pakistan



Organized by **HWPL** | Sponsors: **TPF**, **IPHG**, **IPW**

부록7 언론보도

가나 - Ghana news

Ghana News
Home News Business Politics Entertainment Sports Life & Style

World Peace Summit Calls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Era

The organizer of the event,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CWPL), has been conducting citizen-center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Message of Peace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 HWPL World Peace Summit has been held online. This year's event dealt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shifting from the post-Covid to the with-Covid.

The organizer of the event,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has been conducting citizen-center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This event presented the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with case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international law,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dia. Also, i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reatens the coexistence and harmony of mankind, which has come to the fore during the pandemic.

Peacebuilding efforts led by HWPL, to establish legal founda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for peace through connecting global actors are embodied with its effort to advocate the international law for peace by drafting the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Dr. Mizanur Rahman, Chief Advisor of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BD),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academia.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uphold, the DPCW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In particular, it states that efforts for peace come from all members of the global society by identifying not only nation-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citizens as the main actors of building peace.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verbal abuse and work towards reducing inequalities and eradicat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Ecuador, Dr. Rosalia Arteaga Serrano.

RELATED POSTS

- ECRESS, Diplomacy's Top Strategist on Peace and Security
- U.S. & S. see political evolution
- Wikipedia Foundation's Secretary engages with South African...

Hon. Octavia Alfr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HWPL peace education and pass on to their friends, parents, and teachers what they have learned. She addressed it also deals with concepts that can develop psychosocial competency skill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order,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so it is being used for teacher's training.

"Our objective is to end wars in the global village and establish peace and make it a permanent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Without peace, everything that we managed to build would be destroyed. ... We should not let this happen. So, to achieve peace, shouldn't we achieve our objective with the same spirit?" said Chairman Man Hee Lee of HWPL at the event.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Advancing the HWPL Peace Agenda to Help Promote Sustainable Peace

Consen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Cases of Citizens of Peace

Octavia Alfred | Ministry of Education

And when this thing is fully implemented, we just cannot wait to see the fruits of that curriculum.

Consen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Cases of Citizens of Peace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The HWPL Peace Education textbook
The Textbook for HWPL Peace Education has two sections

Dr. Rosalia Arteaga Serrano
Republic of Ecuador, 38th President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Q: Why did you introduce the DPCW Handbook as a textbook of education?

Dr. Mizanur Rahman | Bangladesh

I think that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Consen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Cases of the "Capitulate Peace" Project

Creating a peaceful world for everyone under a law of peace

to create a safe and peaceful world for everyone under a law of peace.

네팔 - Nepal News Agency

Nepal News Agency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Era

Message of Peace

and build a peaceful world

Seoul, Korea |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was held online. This year's event dealt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shifting from the post-Covid to the with-Covid.

The organizer of the event,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CWPL), has been conducting citizen-orient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Dr. Rosalia Arriaga Serrano
Republic of Ecuador, 10th President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Q. Why did you introduce the DPCW Handbook as a textbook of education?

Dr. Moamur Rahman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 BD)

I think that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Mr. Moamur Rahman, Chief Advisor of Association of Asian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 BD), highlighting the need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Mr. Moamur Rahman, Chief Advisor of Association of Asian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 BD),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students.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uphold, the DPCW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ash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Man Hee Lee
Republic of Korea | HWPL Chairman

- Stated the DPCW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 2014-Present, Hosted the HWPL World Peace Summit
- 2014, Hosted the Signing Ceremony of the Mindanao Peace Agreement and the Peace Walk
- 2013-2018, World Peace Tours (31 rounds)
- 2013, Proclaimed the Declaration of World Peace
- 2016, Proclaimed the Declaration of Unification

In particular, it states that efforts for peace come from all members of the global society by identifying not only nation-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citizens as the main actors of building peace.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verbal abuse and work towards reducing inequalities and eradicat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Ecuador Rosalia Arriaga Serrano.

Octavia Kif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And when this thing is fully implemented, we just cannot wait to see the fruits of that curriculum.

Octavia Kif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nd pass on to their friends, parents, and teachers what they have learned. He addressed it also deals with concepts that can develop psychosocial competency skill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order,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so it is being used for teacher's training.

"Our objective is to end wars in the global village and establish peace and make it a permanent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Without peace, everything that we managed to build would be destroyed. We should not let this happen. So, to achieve peace, shouldn't we achieve our objective with the same spirit?" said Chairman Man Hee Lee of HWPL at the event.

HWPL Progress Report

The light of peace that will open up a new future and be remembered forever by the future generations

루마니아 - EVZ

EVZ COMUNICATE | OFERTA EVZ COMUNICATE | INTRA IN CONT | EVZ.RO

evz.ro
Comunicate

Summit-ul Mondial de Pace face apel la acțiune comună pentru pacea sustenabilă în noua eră normală

Photo: KIM EUNBI

02 Sept 2021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Advancing the DPCW's Peace Agenda in a New Normal,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HWPL | IPYG | DPCW

Pe 18 Septembrie 2021 a avut loc a 7-a aniversare de la Summit-ul Mondial de Pace HWPL de pe 18 septembrie. Evenimentul din acest an s-a lovit de eforturile și schimbările la nivel internațional, astfel încât programul pentru pace a trecut de la era pre-COVID la cea cu-COVID și anume noul normal.

Organizatorul evenimentului,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a organizat activități pentru dezvoltarea păcii centrate pe cetățeni, cu scopul de a crea o cultură pentru pace susținută de ONU și comunitatea internațională, pentru a crea un mediu pașnic de coexistență încă de la Summit-ul Mondial de Pace din 2014.

Acest eveniment a prezentat acțiunea comună pentru o pace durabilă cu cazuri din diferite sectoare, cum ar fi legea internațională, religia, educația și mass-media. De asemenea, a fost abordată cooperarea internațională pentru a depăși criza actuală care amenință coexistența și armonia omenirii, care a ieșit în evidență în timpul pandemiei.

Eforturile de consolidare a păcii conduse de HWPL pentru a stabili fundamente juridice și norme internaționale pentru pace prin conectarea participanților globali sunt concretizate prin efortul său de a susține legea internațională pentru pace prin redactarea Declarației de Pace și Încetare a Războiului (DPCW).

„Manualul DPCW ne permite să predăm în mod sistematic legea internațională și esența păcii acestor studenți și altora. Le permite să devină lectori în cursul următor”, a declarat dl Mizanur Rahman, consilier principal al Asociației Asiatice a Profesorilor de Drept (AALP), precum și fost președinte al Comisiei naționale pentru Drepturile Omului din Bangladesh (NHRC-BD), subliniind necesitatea de a încuraja discursul public privind consolidarea păcii de către mediul academic.

În plus, față de principiile de bază ale păcii care trebuie respectate de către națiuni, DPCW a prezentat principii care ar trebui abordate în epoca actuală, cum ar fi interzicerea folosirii forței, promovarea libertății religioase și participarea civică pentru a răspândi o cultură a păcii. În special, afirmă că eforturile pentru pace vin din partea tuturor membrilor societății globale, identificând nu numai statele-națiuni, ci și organizațiile internaționale și toți cetățenii ca fiind principalii participanți la construirea păcii.

„Știm că va fi greu să obținem pacea dacă nu lucrăm cu toții pentru ea. De aceea, trebuie să încurajăm copiii, tinerii și adulții să prevină abuzul verbal și să lucrăm la reducerea inegalităților și la eradicarea disparităților pentru a obține o lume mai echitabilă, mai stabilă și mai pașnică”, a declarat Rosalia Arteaga Serrano, fost președinte al Ecuadorului.

Octavia Alfred, ministrul Educației, Planificării Resurselor Umane, Formării Profesionale și Excelenței Naționale din Dominica, a declarat că elevii învață necesitatea coexistenței și cooperării reciproce și transmit prietenilor, părinților și profesorilor ceea ce au învățat. El a abordat, de asemenea, concepte care pot dezvolta abilități de competență psihosocială, cum ar fi respectul pentru diversitate, ordinea, rezolvarea conflictelor și negocierea, astfel încât este folosit pentru formarea profesorilor.

„Obiectivul nostru este de a pune capăt războaielor în lume și de-a instaura pacea și de-a face din aceasta o moștenire permanentă pentru generațiile viitoare. Fără pace, tot ceea ce am reușit să construim va fi distrus. ... Nu ar trebui să lăsăm să se întâmple acest lucru. Așadar, pentru a obține pacea, nu ar trebui să ne atingem obiectivul cu același spirit?”, a declarat președintele Mari Hee Lee de la HWPL în cadrul evenimentului.

Sustainable Peace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era

On September 18th, 2021,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was held online. This year's event dealt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shifting from the post-Covid to the with-Covid.

The organizer of the event,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has been conducting citizen-center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This event presented the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with case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international law,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dia. Also, i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reatens the coexistence and harmony of mankind, which has come to the fore during the pandemic. Peacebuilding efforts led by HWPL to establish legal founda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for peace through connecting global actors are embodied with its effort to advocate the inter-

national law for peace by drafting the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Dr. Mizanur Rahman, Chief Advisor of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



mission, Bangladesh (NHRC-BD),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academia.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uphold, the DPCW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In particular, it states that efforts for peace come from all members of the global society by identifying not only nation-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citizens as the main actors of building peace.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verbal abuse and work towards reducing inequalities and eradicat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Ecuador, Dr. Rosalia Arteaga Serrano. Hon. Octavia Alfr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HWPL peace education and pass on to their friends, parents, and teachers what they have learned. She addressed it also deals with concepts that can develop psychosocial competency skill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order,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so it is being used for teacher's training. "Our objective is to end wars in the global village and establish peace and make it a permanent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Without peace, everything that we managed to build would be destroyed. ... We should not let this happen. So, to achieve peace, shouldn't we achieve our objective with the same spirit?" said Chairman Man Hee Lee of HWPL at the event.





**SEYCHELLES ENERGY COMMISSION
VACANCY**

Senior Legal Officer

The Seychelles Energy Commission (SEC) a body established in 2010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 electricity sector while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energy sector. The SEC is looking for a dynamic, responsible and enthusiast individual for the position of **Senior Legal Officer**.

Minimum entry requi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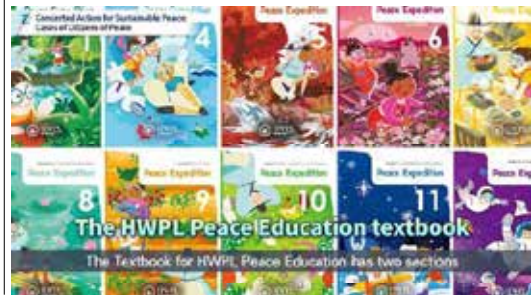
- Post Graduate Degree in law.
- Bachelor's Degree in any subject of law plus three years qualifying experience

Remuneration: Based on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s

Interesting applicants should send their application letter with their CV addressed to the Human Resource and Budget Management Officer (HRBMO) by email careers@sec.gov.sc or to the address below. Detailed job description is available upon request.

Seychelles Energy Commission
Room 307/308, 3rd Floor, Block B, Unity House
PO Box 1488, Victoria, Mahe

Closing date: 30.09.21



아일랜드 - Laois Nationalist

Laois Nationalist

HOME
LAOIS NEWS
LAOIS SPORT
RECRUIT IRELAND

f

t

HOME - LAOIS NEWS -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ERA


MONDAY, SEPTEMBER 20, 2021

Sponsored Post

On September 18th, 2021,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was held online. This year's event dealt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shifting from the post-Covid to the with-Covid.

The organizer of the event,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has been conducting citizen-center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This event presented the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with case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international law,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dia. Also, i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reatens the coexistence and harmony of mankind, which has come to the fore during the pandemic.



Peacebuilding efforts led by HWPL to establish legal founda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for peace through connecting global actors are embodied with its effort to advocate the international law for peace by drafting the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Dr. Mizanur Rahman, Chief Advisor of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BD),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academia.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uphold, the DPCW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In particular, it states that efforts for peace come from all members of the global society by identifying not only nation-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citizens as the main actors of building peace.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verbal abuse and work towards reducing inequalities and eradicat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Ecuador, Dr. Rosalia

Arteaga Serrano.

Hon. Octavia Alfr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HWPL peace education and pass on to their friends, parents, and teachers what they have learned. She addressed it also deals with concepts that can develop psychosocial competency skill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order,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so it is being used for teacher's training.

"Our objective is to end wars in the global village and establish peace and make it a permanent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Without peace, everything that we managed to build would be destroyed. ... We should not let this happen. So, to achieve peace, shouldn't we achieve our objective with the same spirit?" said Chairman Man Hee Lee of HWPL at the event.



Судловнинг
 Мазкур хабарот
 Агентлиги

🔍 Сайт бўйлаб излаш
🇺🇦 🇷🇺 🇯🇲 🇯🇪

Бош саҳифа

Илғимликлар лентаси

Рухонар >

Худудлар >

Фотобанк

Тантаналарим

Долзарб мавзулар



ЮРИДИК КЛИНИКА

Тинчлик саммитида 157 та мамлакатдан 30 минг киши иштирок этди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 Xabarlar
 📄 Tuzilmalar
 🕒 11.01 / 25.08.2023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ташкилотининг Тинчлик саммитига 7 йил тўлиши муносабати билан онлайн тарзда тадбир бўлиб ўтди.

Бу йилги тадбирлар халқаро сەъй-ҳаракатларининг қулайлишига ва COVID-19 дан кейинги ва COVID-19 ларонгига ҳаёт кечиринч даврида тинчлик ҳаракатларини олиб боришга бағишланди.

Саммитда YouTube орқали 157 мамлакатдан 30 мингдан зиёд киши иштирок этди, яна 2500 киши Zoom конференциялари орқали қатнашди.

Маъмур саммитни ташкил этган ЁМТнинг ЭВООСО ташкилоти ҳузуридagi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халқаро ташкилоти 2014 йилда ўтказган тинчлик саммитидан кейин сайёрамизда "тинчлик маданияти"ни яратиб учун фуқароларнинг тинчликларидаринка йўналтирилган тадбирларининг ўтказиб келади. Маъмур ҳаракат ЁМТ ва халқаро ҳамкорлик томонидан ҳўллаб-қувватлаб келинмоқда.

«Биз, бarchамиз бир бўлиб ушбу йўналишда иш олиб бермасак, тинчликка эришиш осон эмаслигини яқин билмаиз. Шу билан, болаларни, йшларни ва катталарни бир-бирини ҳақорат қилмаган гаплардан тийинишга чарошимиз зарур ва янада адолатли, барқарор ва тинч дунёга эришиш учун инсонлар ўртасида тинчликка барҳам беришимиз лозим», – дейди Эквадорнинг собиқ президенти Росалия Артеага Серрано.

«Бизнинг мақсадимиз – сайёрамизда урушларга барҳам бериш, тинчликни ўрнатилиш ва ушн кўпلىк амлод учун абадий мерос қилиб қолдириш. Агар тинчлик бўлмаса, инсоният номини бермо этган бўлса ҳаммаси айрон бўлади, биз буни асло йўл ҳўймаслигимиз керак. Тинчликка эришиш учун ҳаммамиз берганида ушбу мақсадни рўйба чиниришимиз керак бўлади», – дея тазкиладди HWPL раиси Ли Ман Хи.

Маъмур саммитда мустақкам тинчликни қарор топтириш учун халқаро ҳўф, дин, таълим ва оммавий аъборот воситалари каби турли йўналишларда берганидаги сەъй-ҳаракатлар тақдим этилган. Оўзга чиқовлар айниқса, пандемия даврида долзарблиги янада ошган ва инсониятнинг яшаб қалишига таҳдид соғайтган ҳўлрени юнқиротни енгилб ўтиш учун барчани халқаро ҳамкорликка чамардилар.

тадбир

конференциялар



<http://uza.uz/posts/395164>
🔗

positano news
Costiera Amalfitana Penisola Sorrentina News24 Sport Positano TV

Conferenza mondiale sulla pace che chiede un'azione concertata per la pace sostenibile nella nuova era normale

18 settembre 2021 10:33

Message of Peace

and build a peaceful world

Il 18 settembre 2021, si è tenuto online il 7° anniversario del HWPL World Peace Summit del 18 settembre. L'evento di quest'anno ha riguardato i progressi degli sforzi internazionali e i piani per promuovere l'agenda della pace nell'era del "Nuovo Normale" che passa dal post-Covid al con-Covid.

L'organizzatore dell'evento,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sta conducendo attività pacifiche incentrate sui cittadini per creare "una cultura di pace" sostenuta dall'ONU e dalla comunità.

L'organizzatore dell'evento,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WPL), sta conducendo attività pacifiche incentrate sui cittadini per creare "una cultura di pace" sostenuta dall'ONU e dalla comunità internazionale per stabilire un ambiente di coesistenza pacifica dal World Peace Summit del 2014.

Questo evento ha presentato l'azione concertata per la pace sostenibile con casi provenienti da vari settori come il diritto internazionale, la religione, l'educazione e i media. Inoltre, ha affrontato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er superare l'attuale crisi che minaccia la coesistenza e l'armonia dell'umanità, che è venuta alla ribalta durante la pandemia.

Gli sforzi di peacebuilding condotti da HWPL per stabilire basi legali e norme internazionali per la pace attraverso la connessione di attori globali sono incarnati dal suo sforzo di sostenere il diritto internazionale per la pace attraverso la stesura della Dichiarazione di Pace e Cessazione della Guerra (DPCW).

"Il manuale DPCW ci permette di insegnare sistematicamente il diritto internazionale e l'essenza della pace a questi studenti e ad altri. Permette loro di diventare docenti nel corso successivo", ha detto il dottor **Mizanur Rahman**, consigliere capo della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nonché ex presidente dell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BD), sottolineando la necessità di incoraggiare il discorso pubblico sulla costruzione della pace da parte del mondo accademico.

Oltre ai principi di base della pace assegnati alle nazioni da sostenere, il DPCW ha presentato principi che dovrebbero essere trattati nell'epoca attuale, come il divieto dell'uso della forza, la promozione della libertà religiosa e la partecipazione civica per diffondere una cultura di pace. In particolare, afferma che gli sforzi per la pace provengono da tutti i membri della società globale, identificando non solo gli stati-nazione ma anche le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e tutti i cittadini come i principali attori della costruzione della pace.



"Sappiamo che sarà difficile raggiungere la pace se non lavoriamo tutti per essa. Ecco perché dobbiamo incoraggiare i bambini, i giovani e gli adulti a prevenire gli abusi verbali e a lavorare per ridurre le disuguaglianze e radicare le disparità per ottenere un mondo più equo, stabile e pacifico", ha detto l'ex presidente dell'Ecuador, la dottoressa **Rosalía Arteaga Serrano**.

L'onorevole **Octavia Alfred**, ministro dell'istruzione, della pianificazione delle risorse umane, della formazione professionale e dell'eccellenza nazionale della Dominica, ha detto che gli studenti imparano la necessità della coesistenza e della cooperazione reciproca attraverso l'educazione alla pace di HWPL e trasmettono ai loro amici, genitori e insegnanti ciò che hanno imparato. Ha affrontato anche concetti che possono sviluppare capacità di competenza psicosociale, come il rispetto per la diversità, l'online, la risoluzione dei conflitti e la negoziazione, quindi viene utilizzato per la formazione degli insegnanti.

"Il nostro obiettivo è quello di porre fine alle guerre nel villaggio globale e stabilire la pace e renderla un'eredità permanente per le generazioni future. Senza la pace, tutto ciò che siamo riusciti a costruire verrebbe distrutto. ... Non dovremmo lasciare che questo accada. Quindi, per raggiungere la pace, non dovremmo raggiungere il nostro obiettivo con lo stesso spirito?" ha detto il presidente **Man Hee Lee** della HWPL, all'evento.

8 एशिया खबर "दैनिक"
पृष्ठ दिल्ली, रविवार 19 सितम्बर 2021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Era

Tanishq Gupta New Delhi: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shifting from the post-Covid to the with-Covid. "The organizer of death with the progress of

संरा प्रसन्नभा में मानवाधिकार और लोकतंत्र की रक्षा पर बात करेगे वाशुदेव शंकर शर्मा

संरा प्रसन्नभा में अंतर्राष्ट्रीय मानवाधिकार और लोकतंत्र की रक्षा पर बात करेगे वाशुदेव शंकर शर्मा। संरा प्रसन्नभा में अंतर्राष्ट्रीय मानवाधिकार और लोकतंत्र की रक्षा पर बात करेगे वाशुदेव शंकर शर्मा।



peace through connecting global actors are embodied with its effort to advance the international law for peace by drafting the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ad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Dr. Mitama Rahman, Chair Advisor of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ac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verbal abuse and work towards reducing inequalities and eradicat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Venkatesh, Dr. Rosalia Arivazh Seranai. "Hon. Octavia Allfor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HWPL peace building activities to



creates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This event presented the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with case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international law,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dia. Also, i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reatens our

(NHRC-ND),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academia.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uphold, the DPCW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In particular, it

ब्रिटेन ने अंतर्राष्ट्रीय यात्रा को आसान बनाने के लिए ट्रेफिक लाइट सिस्टम को खत्म किया

लंदन: ब्रिटेन ने अंतर्राष्ट्रीय यात्रा को आसान बनाने के लिए ट्रेफिक लाइट सिस्टम को खत्म किया। ब्रिटेन ने अंतर्राष्ट्रीय यात्रा को आसान बनाने के लिए ट्रेफिक लाइट सिस्टम को खत्म किया।



ब्रिटेन ने अंतर्राष्ट्रीय यात्रा को आसान बनाने के लिए ट्रेफिक लाइट सिस्टम को खत्म किया। ब्रिटेन ने अंतर्राष्ट्रीय यात्रा को आसान बनाने के लिए ट्रेफिक लाइट सिस्टम को खत्म किया।

दक्षिण अफ्रीकियों ने नगर निगम चुनावों के लिए पंजीकरण करने का अनुरोध किया

दक्षिण अफ्रीका: दक्षिण अफ्रीका के नगर निगम चुनावों के लिए पंजीकरण करने का अनुरोध किया। दक्षिण अफ्रीका के नगर निगम चुनावों के लिए पंजीकरण करने का अनुरोध किया।



संरा प्रसन्नभा में अंतर्राष्ट्रीय मानवाधिकार और लोकतंत्र की रक्षा पर बात करेगे वाशुदेव शंकर शर्मा

संरा प्रसन्नभा में अंतर्राष्ट्रीय मानवाधिकार और लोकतंत्र की रक्षा पर बात करेगे वाशुदेव शंकर शर्मा। संरा प्रसन्नभा में अंतर्राष्ट्रीय मानवाधिकार और लोकतंत्र की रक्षा पर बात करेगे वाशुदेव शंकर शर्मा।

Chief Editor:
Shahzad Ahmed Rathore

Daily Freedom Post

VOICE OF FREEDOM LOVERS

MUZAFFARABAD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SPEECH ★ FREEDOM OF KASHMIR

Vol. 01 Issue: 248 Monday September 20, 2021 • Price Rs. 10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Era

MUZAFFARABAD: On September 18th, 2021,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was held online. This year's event dealt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arising from the post-Covid to the world.

The organizer of the event, University Culture, World Peace, Remembrance of Light (HWPL), has been conducting citizen-orient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This event presented the 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peace with case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international law,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dia. Also, i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reatens the coexistence and harmony of mankind, which has come to the fore during the pandemic.

Peacebuilding efforts led by HWPL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norms for peace through conducting global activities/endeavors will in effort to advance the international law for peace by drafting 'the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essential toward the creation of peace to tho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Dr. Misoor Rehman, Chief Advisor of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lamabad (NHRC-20),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academics.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signified, the HWPL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In particular, it states that efforts for peace come from all members of the global society by identifying not only nation-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citizens as the main actors of building peace.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social abuse and work toward resolving inequalities and minimiz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Ecuador, Dr. Roldán Arias Soriano.

Prof. ENTREN AHM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amination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HWPL peace education and pass on to their friends, parents, and teachers what they have learned. She addressed it also dealt with concepts that can develop psychosocial competency skill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ethics,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so it is being used for teacher's training.

"Our objective is to end wars in the global village and establish peace and make it a permanent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Without peace, everything that we managed to build would be destroyed. ... We should not let this happen. So, to achieve peace, shouldn't we achieve our objective with the same spirit?" said Chairman Man Hee Lee of HWPL at the event.



World Peace Summit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New Normal



By Philippines PH | December 16, 2021 | 14

On September 18, 2021, around 30,000 people from 157 countries virtually joined the 7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8th HWPL World Peace Summit. This year's event dealt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the plans to promote the peace agenda in the 'new normal' era.



The organizer of the event,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HCWL), has been conducting citizen-centered peacebuilding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advoca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up an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4.



This event presented the concerted action for sustainable peace with case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international law,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dia. Also, i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reatens the coexistence and harmony of mankind, which has come to the fore during the pandemic.



Peacebuilding efforts led by HWPL to establish legal

(DPCW).



"The DPCW Handbook enables us to systematically teach international law and the essence of peace to these students and others. It enables them to become lecturers in the following course," said Dr. Mizanur Rahman, Chief Advisor of Asian Association of Law Professors (AALP) as well as Former Chai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NHRC-BD), highlighting the need to encourage public discourse on peacebuilding by academia.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peace assigned to nations to uphold, the DPCW has presented principle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era, such a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fostering religious freedom, and civic participation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In particular, it states that efforts for peace come from all members of the global society by identifying not only nation-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citizens as the main actors of building peace.

"We know that it will be hard to achieve peace if we are not all working for it. This is why we need to encourage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prevent verbal abuse and work towards reducing inequalities and eradicating disparitie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table, and peaceful world," said Former President of Ecuador, Dr. Rosalia Arteaga Serrano.



Hon. Octavía Alfred, Minister of Education, Human Resource Planning,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Excellence of Dominica, said that the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mutu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HWPL peace education and pass on to their friends, parents, and teachers what they have learned. She addressed it also deals with concepts that can develop psychosocial competency skill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order,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so it is being used for teacher's training.



책자명 :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결과보고서

- 뉴 노멀 시대 DPCW의 평화 의제 증진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

발간처 :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발간일 : 2021.9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7주년 기념식 행사 결과보고서

뉴 노멀 시대 DPCW의 평화 의제 증진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